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감시 안내원도 북한 일상 담는 것 암묵적 동의

### '사람은 하늘이다' 대실 김 집슨 감독을 만나다

김대실 감독, 50년만에 찾은 고향에 대한 진한 회한 감시가 여전한 틈을 인간적인 웃음으로 뚫고 삶 담아 민간인들 모습 격변의 20, 21세기 지났어도 여전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북한에 관한 정보는 심심치 않게 접한다. 탈북자, 인권, 핵실험, 포격, 도발 미사일, 경제제재, 김정은, 숙청 등의 단어가 쉽사리 연상되는 북한이다. 상당수 우리의 북한 상상력은 거기서 멈춘다. 북한 주민의 일상이란 단어는 휘귀종 일 수밖에 없다.

같은 하늘 아래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일상은 어떨까. 북한에 대해 끊임없는 적개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주제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갖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 대실 김 집슨의 시선으로 북한의 일상을 담은 다큐 영화가 11월 3일 오후 5시 보스톤 대학에서 상영된다.

궁금했다. 분명 북한 안내원의 통제가 있었을 것인데 일상을 찍은 필름이라니.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영화도 물론 북한 안내원의 통제 하에서 찍힌 필름이다. 그러나 감독은 인간적인 접근으로 통제의 끈

을 늦추고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담아냈다.

어릴 때 살았던 보았던 그 모습을 지금에도 확인한 감독은 진정한 고향을 느낀다. 그러나 21세기의 급변하는 시대에 여전함을 간직한 북한 주민들에게서 안타까움도 놓치지 않는다. 북한인들에게서만 그런 순수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가. 감독이 너무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을 담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다. 남한에서 삶을 거의 영위했던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나 김 감독이 필름에 입문한 이래 소수자, 약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던 과거 작품들을 돌아보면 그의 시선을 한 칸 이해할 수 있기도 하다. 그래서 여전히 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궁금하다. 지금껏 아무도 이만큼 북한의 과거를 잘 이해한 감독이 찍은 북한의 일상은 없었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감독과 이메일로 주고 받은 일문 일답이다. 직접 인터뷰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김 감독이었다.

People Are the Sky  
시간 : 11월 3일 오후 5시  
장소 : GSU (George Sherman Union) Conference Auditorium, 775 Commonwealth Ave., 2nd floor.

지금까지 받은 많은 북한관련 뉴스와 정보를 종합하면 북한은 절대 홍보용 주민들 삶이 아니면 촬영과 취재를 불허했습니다. 감독님께서 담은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정말 일상적인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가?  
긍정 부정 모두다.

북한은 나를 비롯한 외부인들에게 주민들의 집을 방문토록 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실제 가정생활을 접하거나 실제 집을 촬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영화가 제한적이지만 북한 주민들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일상을 표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김대실 감독 >>2면으로 계속



## 오는 11월 1일 새벽 2시 일광 절약 시간제 해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지난 3월부터 시행돼 왔던 데이라이트 세이빙(일광절약시간제)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는 11월 1일 월요일 새벽 2시부터 해제된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보스톤 지역을 포함한 미국 동부의 11월1일 오전 2시는 오전 1시가 되면서 1시간씩 늦춰지므로 31일 일요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계를 1시간 뒤로 맞춰 놓고 잠자리에 들면 된다.

보스톤과 워싱턴DC, 뉴욕 등의 동부지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시차는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어난다.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시행되어 온 서머타임제는 미국에서는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 운영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25일 서머타임이 해제됐다.

해가 중천에 떠있는 시간이 짧아진 만큼 본격적인 가을과 겨울의 계절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jham@bostonkorea.com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각·무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jsung.com



From \$940  
ONLY 1 STOP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645.1587  
juno@selamifirm.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사람은 하늘이다' 대실 김 김슨 감독을 만나다

▶▶1면에 이어서

예를 들자면 한 번은 나는 신생아를 가진 젊은 부부의 집에 갈 수 있었다. 남편과 부인은 섬유공장 노동자였다. 분명히 이들은 나를 위해 선택된 사람들였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보다 생활 조건이 좋은 집이었다. 이 집은 괜찮은 집이었으며 냉장고 등 일부 현대식 편의시설이 있었다. 또한 내가 본 사람의 대부분은 가이드가 안내해 준 거리, 공원, 호텔, 식당 등에서 마주친 사람이었다. 이들은 좋은 옷에 활짝 웃는 얼굴에 관찰아 보였고 굶주림의 흔적은 없었다. 지하철을 탔을 때도 모두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많은 잘생긴 남성들과 아름다운 북한 여성들을 평양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몇 번이고 평양을 벗어나 일반 사람들의 일상으로 침투하려 하였고 나는 그들의 옷과 얼굴표정에서 삶에 찌든 곤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을 포함한 어느 서양 국가들의 노동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나쁘다 할 수 없었다.

대도시와 시골의 격차는 나에게 별 놀라움이 아니었다. 특별히 언급할 것은 내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거리 공원에서 만났던 어린이들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미국은 물론 남한의 어린이들보다 적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빛났고 흥기가 있었으며 즐겁고, 희망적이었고 전체적으로 아

주 잘 자라고 있었다. 나는 학생들이 방과 후 특별활동을 하는 (어린이 집)에서 본 아이들의 재능에 한 마디로 깜짝 놀랐다. 그들 중 대부분이 약기를 연주할 수 있었으며 동서양 춤, 수영, 다이빙, 무용 등에 능숙했다. 이는 북한이 결코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만약 1번 답이 그렇다는 답변이라면)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촬영할 수 있었는가? 북한 당국의 협조는 어렵지 않았나?

처음은 UN 북한 대표부와의 만남이었다. 만남이 잘 진행되어서 희망을 가지고 미국인의 친구를 통해 북한에 요청했지만 평양에서 6개월만에 돌아온 소식은 거절당했다는 소식이었다.

이후 난 한국계 미국 시민들의 북한 관광 방문을 돕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KANCC)이 그것이다. 행운처럼 나는 이 KA-NCC회장을 알게 됐다. 그는 촬영 공식 요청을 과거처럼 국무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KA-NCC와 일하는 사람을 통한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필름의 목적 및 이유 등 3페이지에 달하는 요청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2012년 마침내 나는 평양을 방문하는 한국계 미국인 즉 한인 그룹에 속

해 있었다. 나는 카메라맨과 함께였다. 그는 한인으로 체류 경비만 지급하면 다른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2013년 다시 북한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장시간의 촬영이었다. 나는 카메라맨에게 체류비는 물론 보수도 지불해야 했다. 정말 좋았던 것은 북한 당국이 자체 카메라맨을 붙여 줬다는 것이다. 그는 아주 프로페셔널이어서 나는 그의 촬영분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

북한 촬영 허가를 받았을 때 나는 이 촬영 허가가 미국계 한인으로서 처음이란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나 갈 수 있고 누구나 찍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나는 항상 정부가 지정해준 카메라맨 이외에 한 명 또는 두 명의 안내원을 동반하고 다녔다. 그들은 지정해준 장소와 지정해준 사람만을 촬영할 것을 주문했다.

심지어 정상적인 상황일지라도 사람을 촬영하는데는 명확하거나 때로

는 숨겨진 문제들이 있다. 북한에서 나는 안내원들의 감독 하에 촬영해야 하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 안내원들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누구와 만날 지 모두 알고 있었다. 이는 때로 내가 원하는 촬영들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이런 환경일지라도 언제든지 유연하고 상상력 있으며 순간적인 의도를 가진 눈과 귀를 열면 그리고 조금의 위험을 감수하면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

촬영 때는 모든 신경과 집중이 촬영에 가 있기 때문에 먹거나, 걸거나, 말하는 모든 행동들 와중에서도 머리에는 촬영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 맴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오감의 특별한 감각까지 열어 모든 것을 흡수하고자 한다. 핵심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한다는 것이다. 나는 미리 규정하거나 설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없었다. 나는 상대방이 여유가 있을 때 빠르고 결정적이어야 했다. 나처럼 낯선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의 신뢰나 관심을 얻겠는가? 빠른 유머감각보다 마법스러운 것은 없다.

한국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다. 웃음을 나누고자 하는 의사는 반응을 원하는 대상의 빠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북한의 가장 명석한 대학 학생들에게 "내 머리 모양이 흥측하나요?" "왜 당신은 그리 빈둥거리나요?" 하는 식으로 묻

는다. 안내원이 정한 물을 때로는 따르지 않아 딱딱하게 경직된 그들에게 "나무하고 말할 수 있나요? 나무에게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있나요?" 라고 묻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꺼이 감정을 공유하려는 노력이다. 웃음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을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얼마나 낮은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표면을 넘어 상대방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 내면의 명령을 따르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이 정직함과 진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항상 통한다.

사람들은 때론 나의 활달하고 즐거운 개인 성품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외에 난 내가 내일을 하듯 그들도 그들 일에 충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은밀하게 우리는 서로의 일이 잘 되길 바란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에게는 내가 골칫거리였지만 그들은 내가 자신의 고향 땅의 내음을 즐기고 사람들과 가까워지려 하는 바스켓 모양의 파마머리의 나이든 사람으로 놀려졌다.

금지된 사람과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장애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의 창의적인 불복종이 나오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먼 거리에서도 내가 말



'사람은 하늘이다' 포스터

▶▶3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사람은 하늘이다' 대실 김 김스 감독을 만나

▶▶2면에 이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과 말할 수 있었다. 행동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그들에게 달려갔다. 안내원이 나를 잡을 때 즈음이면 내 카메라맨은 이미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장면에는 내게 종종 창의적인 힘이 됐다.

**촬영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요?**

2012년과 2013년에 두번 방문했다. 2012년에는 짧았지만 2013년에는 좀 더 오랫동안 촬영했고 평양 밖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필름의 제목이 '사람이 하늘이다 (People Are the Sky)'인데 동학혁명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다. 북한 주민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목으로 선정된 것에는 어떤 의미와 이유가 담겨 있는지요?**

영화의 제목은 동학에서 영감을 얻었다. 동학은 19세기 한국에 일었던 철학이자 종교다. 동학은 신이 하느님이며 모든 사람들은 신과 평등하다고 가르쳤다. 이는 일반 사람들이 바로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십년 간의 일제 치하에서 한국이 독립하고 남북이 분단되었다.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고 동학 사상을 살아 있었다.

위대한 배움의 센터에서 직원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그는 모든 정부 빌딩은 사람들을 우러러 보는 위대한 배움의 센터 아래 건축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것은 동학과 내 남편 돈이 내게 했던 것을 생각나게 했다.

동학과 이것의 가르침은 "사람은 하늘이다" 그리고 남편 돈은 아이오와 하늘 아래 옥수수밭에서 모든 사람은 자연과 신을 내재했다고 믿었다. 나는 돈의 아이오와 하늘이 한국 동학의 하늘과 일맥상통하다고 느꼈다. 신이 하늘이라면 사람도 하늘이라는 일반적인 신념이 같은 측면에서 그렇다

**탈북자들과 북한 인민들의 삶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들의 삶을 다큐멘타리를 만드신 감독의 눈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가요?**

나라를 탈출한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나라를 떠나야 했던 자신들의 이유가 있다. 아직도 북한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한정적으로 본 내 자신의 경험에 비추보면 이들의 관점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그곳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아주 유사한 삶을 살고 있었다. 희망과 좀더 나은 생활에 대한 야망과 아이들이 좀더 즐겁고 편안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양육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혀 끊임없는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았다. 인권침해가 세상에서 가장 심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들은 (내가 알기론) 미국을 비롯한 다른 어떤 나라의 상황

**김대실 감독 주요 다큐멘터리 영화**

- 사이구Sa+Gu (1993) 폭동을 한인 여성 상점주의 시선에서 그린 다큐
- 잊혀진 사람들: 사할린 한인들 (1995) 2차 대전과 냉전의 희생양들로 사할린 섬에 강제 노역자들에게 관한 다큐
- 깨진 침묵: 위안부 여성들 Silence Broken: Korean Comfort Women, (1999), 일본군에 의해 강제 성노예가 된 한인 여성들에 대한 얘기
- 젖은 모래: LA의 목소리 Wet Sand: Voices from LA, (2004). 1992년 LA 폭동 이후 미국 사회 내에 뿌리깊게 박힌 악점들과 폭동이 영원히 바뀌버린 삶들을 조명한 다큐
- 모국 Motherland (Cuba Korea USA), (2006), 쿠바 혁명과 한국 이민자들의 시선을 통해 감독의 개인적 정체성과 모국에 대한 탐구를 담은 다큐
- 올리비아 스토리 Olivia's Story, (, 1999). 어린 한인 올리비아와 할머니가 다양한 인종 배경의 야구 경기를 통해서 한국전쟁의 아픔을 추억하고 처음으로 흑인을 만나는 경험을 그린 서정적 다큐
- 미국의 형성 America Becoming, (, 1991).

보다 나쁘지 않았다.

**북한에서 태어났던 사람으로서 고향을 돌아본 소회가 바로 다큐멘터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보게 될 지 몰랐다. 한국 속담처럼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70년을 생각해 보라. 그래도 나는 그 동안 미디어-신문과 방송/케이블-에서 묘사하고 알렸던 북한 사람들의 이미지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7살이었을 때 당시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시절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미디어에서 그리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은 내가 맞았던 것이다.

인천 공항에 내렸을 때 케네디 공항이 초라해짐을 알았다. 크고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갖췄다. 그럼에도 나는 슬펐고 반감이 생겼으며 내가 자란 땅에서 피어나는 자본의 냄새에 토할 것만 같았다. 그곳에는 뉴욕시의 거리보다 더 많은 디자이너 고급 상점들이 있었다. 한 때 나의 고향이었던 곳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곳을 빨리 떠나자였다.

평양 공항에 내렸을 때 나는 네브라스카 주의 오마하 공항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공항은 내 남편 돈과

아이오와 서쪽에 거주하는 그의 부모님을 방문할 때 몇차례 갔던 곳이다. 평양공항은 수도에 있는 국제공항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나는 고향처럼 느꼈다. 내가 그리던 고향이었다. 사람들은 순수했고 점잖았고 우호적이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도 친절했고 나를 환영했다. 이것은 1945년 겨울 원하지 않았지만 떠나야 했던 나의 고향으로의 귀향이었다. 안내원이 운전하는 밴에 올라 탔을 때 나는 귀향이란 느낌에 대해 생각했다. 얼마나 70년 전 기억에 있던 사람처럼 순수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지. 이것은 정말로 좋았지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 20, 21세기 세계 어느 곳에서든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나는 북한이란 장소나 나라가 내 고향이 아니라 그곳의 주민, 일반 사람들이 바로 내 고향이었음을 깨달았다.

**왜 교수, 공무원 신분을 버리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뛰어들게 되었는지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된 것에 대해 나는 과거엔 우연이었다고 말해왔지만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내가 이루길 원하는 것들의 자연적인 최정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Ph.D를 보유한 학자였

▶▶5면으로 계속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Fall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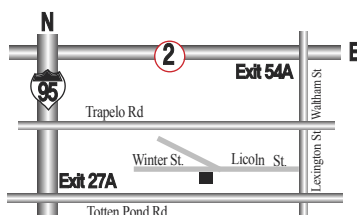
Starting Setember 12, 2015

Class	Time
PSAT / SAT Prep ( New )	9:00 AM – 11:00 AM Saturday
SAT Prep ( Old )	1:00 PM – 3:00 PM Saturday
PSAT /SAT Prep	3:30 PM – 5:30 PM Saturday

<b>Individual Tutoring</b>	2: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	--------------------------------------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FOK가 보스톤 국제결혼가정선교회와 보스톤 한미노인회에 기부금을 수여했다

## 평화봉사단 '한국의 친구들' 연례총회 성료

엄성준 총영사 등 총 60여명이 연례 총회에 참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평화 봉사단체 “한국의 친구들(FOK: Friends of Korea)”이 지난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웨슬리 공립 도서관에서 오찬 리셉션 및 연례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엄성준 주보스톤 총영사와 박윤주 부총영사, 김경원 한인회장, 한미노인회 회원 등 총 60여명이 참여했다.

오찬 후에는 낸시 켈리 FOK 대표와 엄성준 총영사의 환영사가 있었고, 이어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금 수여, 한

국개발원조기관 활동 소개, 한국 관련 강연, 가야금 연주, 샬풀이 무용 등의 공연이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표 김은지씨는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해 설명하며 최근 활동 내용을 소개했다.

FOK는 보스톤 국제결혼가정선교회(회장 이은주)와 보스톤 한미노인회(회장 유영심)에 기부금을 각각 \$1000씩 수여했으며 켈리 대표는 보스톤 한인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행사에 참가한 찰리 다틀라씨는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서울에서 영어를 강의하면서 평화봉사단원으로 봉사했던 변호사이다. 다틀라씨는 이날 자신이 서울에서 봉사하던 중 일어난 1968년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당시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FOK에 대한 후원과 앞으로 행사에 대한 참여 문의는 켈리 대표(nancy.kelly@friendsofkorea.net)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 한인들에게 다가가는 총영사관 민원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2일 영사관 민원실 확장과 함께 주보스톤 총영사관(총영사 엄성준)은 현재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한인들의 쉼터로 바뀌고 있다. 지난 23일 금요일 보스톤 총영사관은 한국 풍경 수묵화 화가인 미국인 닐 랜드레빌씨 외 나노열 작가의 작품들을 전시했다. 보스톤 총영사관 측은 “갤러리 전시는 총영사관의 부속시설이다. 순수하게 작가들의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한인 방문자들에게 예술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총영사관의 모든 갤러리

전시는 상업목적이 아니며 비영리의 목적이다”고 밝혔다.

보스톤 총영사관의 갤러리는 특별히 운영 자금 없이 ‘예술재능기부’이다.

엄성준 총영사는 민원실 확장을 통해 “민원실에 도서들을 많이 들여와 도서관 역할과 함께 한인 아티스트들의 예술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총영사관은 넓어진 민원실의 공간을 한인들의 친목과 문화적인 공간으로 개선하는 중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총영사관 민원실에 전시된 미국인 닐 랜드레빌씨의 수묵화 작품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5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지난 2014년에 열린 한미예술협회 기금마련 만찬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모금 만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회장 김병국)는 오는 7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웨슬리 칼리지 클럽에서 모금 만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만찬회에서는 음악 공연과 작품 경매 등의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만찬회에는 과거 전시회에 참가한 작가들과 외국인들이 기증한 작품들도 전시될 예정이다.

한미예술협회는 내년 2월 6일 보스톤 뮤지엄 (Museum of Fine Arts)과 제3회 구정행사를 중국과 다른 아시아 문화 단체와 공동 주관하며 3월에는 한국에서 초청하는 국악인들이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일주일 간 한국

문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밖에 연례 미술 전시회 및 실내악과 성악공연도 계획 중에 있다.

김병국 회장은 “모금만찬에 뜻있는 많은 교민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참가 신청은 781-367-5993이나 www.kcsboston.org 로 할 수 있다.

행사 일정  
날짜 : 2015년 11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8시

장소 : Wellesley College Club (727 Washington St, Wellesley, MA 02481)

bostonkorean@hotmail.com

## '사람은 하늘이다' 대실 김 집슨 감독을 만나다

▶▶3면에 이어서

다. 이는 개념적으로 지적인 문제들에 질문을 던지도록 갖추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술에 대한 나의 관심과 우리의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여기에 더해졌다. 영화제작 그 자체는 공동작업이다. 나의 존재 자체가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존재다. 학자, 예술가(난 그림을 그렸다), 꿈꾸는 사람.

이런 것들을 합쳐 나의 첫 영화를 만들게 한 것은 1992년 LA 폭동이었다. 1991년 그 유명한 킹의 폭행사건은 한순수한 목격자 조지 할러데이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미국 및 세계적인 미디어의 관심을 끌게 했다. 이후 13개월 동안 NBC, CBS 그리고 ABC 방송사는 저녁 뉴스 시간에만 잔혹한 구타와 체포에 관한 보도를 무려 87번이나 다뤘다. 또한 4명의 가해 경관의 무죄선언도 보도했고 이로 인한 폭동도 보도했다. 미디어는 그들이 다룰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뤘다. 특히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 억압된 선정성은 인간의 비극을 통계와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은 얼마의 피해를 냈고, 몇 명이 죽었으며, 몇 명이 체포됐는지 등에 아주 예민했다. 무엇보다 언론은 한국인들과 흑인사회의 갈등에 대해서 이슈화 하는데 급급했다.

5일 간의 폭동상황을 보면서 난 한인들의 비극적인 상실에 대해 슬퍼했고 미국은 과거 인디언 주민들에 대한

인종청소, 흑인들의 노예제도, 이민자들의 착취, 그리고 빈부의 광대한 격차를 만든 고삐 풀린 자본주의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대해 근본적으로 위반해왔다는 치명적인 사회적 약점에 대해 가슴 아파했다.

당시 발생했던 사건의 슬픔이 내 심장 깊숙히 찔렸다면 언론의 보도는 나를 미치도록 분노케 했다. 언론들은 한 흑 갈등이 마치 사태의 원인처럼 그려 버렸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워싱턴 DC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가능하면 많이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나는 인종갈등과 경제적 불평등, 역사적 문제들, 방치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었다. 위안부, 강제노역자들, 이민자들 등이 그 대상이었다.

마지막으로 남한에 가보신 것이 언제인지요?

2013년 북한에 가는길에 들렀다. 혹시 이 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남한 정부나 정보당국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지 않다. 남한에서 이영화를 상영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남한에서 상영할 정확한 계획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함요한 John Ham  
한태정 Taijung Han

**Graphic Designer**  
정현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괵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Boston**  
magazine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지난 27일 스티븐 김 변호사가 한국 가든에서 '미셸 우 보스턴 광역시의원 정치기금모금 만찬 및 리셉션' 을 주최했다

## 미셸 우 시의원 지지하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오는 11월 3일 화요일 보스톤 시의원 선거를 위해 한인 스티븐 김 변호사가 주최한 '미셸 우 보스턴 광역시의원 정치기금모금 만찬 및 리셉션' 이 지난 27일 화요일 저녁에 올스턴에 위치한 한국 가든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금모금 리셉션에는 25명이 참가해 정치기금모금에 참여했으며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은 한인이었다.

이날 행사를 취재한 WBUR의 달라레스 기사는 "미국계 아시아인들이 함께 모여 같은 아시아 시의원을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 아름답다" 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 시의원과 함께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정을 쌓아온 이야기와 우 시의원이 힘들게 고생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김 변호사는 오랜 친구인 우 시의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같은 이민자로서 우 시의원을 응원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 시의원은 "다음 주에 있을 선거에서 모든 사람들의 투표와 참여가 꼭 필요하다" 며 "투표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 고 전했다. 우 시의원 선거 후보 담당자 세문씨는 "우 시의원은 자신감이 넘친다. 이번 선거에서도 당당히 당선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우 시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5일, 28세 최연소의 나이로 보스톤 광역시의원에 선출됐다.

변호사이자 사회 운동가인 우 의원은 보스톤 시의원 역사상 최초의 중국계 미국인이자 아시아계 여성이다. 현재 우 시의원은 중소기업과 창업, 혁신, 문화 예술 위원회의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우 시의원 지난 2년간 여성들의 유급 출산 장기 휴가제, 푸드 트럭, 레스토랑 창업 및 절차 간소화, 'BYOB(Bring Yo-ur Own Bottle) 회의'를 계속 진행해왔다.

우 시의원에 대한 지지 및 후원 문의는 info@michelleforboston.com 또는 617-652-0136으로 하면 된다.

jham@bostonkorea.com

## 2015 워싱턴 한미 위원회 리더십 정상회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센터에서 정치, 외교, 경제, 과학, 예술, 체육, 사회운동 분야 등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한미 전문인들의 정치력 신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리더십 정상 회담 (Leadership Summit)' 이 열렸다.

전 보스톤 시장 후보 샘 윤이 기획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김 용 세계은행 총재가 기조연설을 통해 "현

실에 실망하지 말고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리며 앞으로 나아갈 것" 을 언급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속에 점점 증대하는 한민족의 위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고 전했다.

한국 측을 대표하는 정병국 의원은 "원조를 받던 우리가 유일하게 세계 저개발국들에게 원조를 다시 하는 국가가 되었음" 을 강조하고 한인 차세대들의 큰 역할을 주문했

다. 한미정치력신장연대 김성혁 회장은 FTA 체결 후 시행될 매년 12,000개의 한인 취업비자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공식 요청했다.

오후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최근 증대하는 아세안 아메리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우수한 한인 인재들이 일반 직무보다 공직에 진출하기를 요청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 제 3회 차세대 심포지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회장 이경해, 이사장 김성군)는 오는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제 3회 차세대 심포지움(Young Leaders Symposium)을 하버드 로스쿨 Milstein East Room A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한미 정치세력화와 시민적 관여 (Korean American Political Empowerment, Civic Engagement)" 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 행사에는 테키첸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과 그레이스리 매사추세츠주 재무담당 법무 자문위원, 벤 스미스 텍사스주 구역 판사, 황우성 하버드 의대 연구 교수 등이 참여한다.

차세대 심포지움 참석을 원할 경우,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 및 이벤트 브라이언트(www.evenbrite.com)에서 2015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검색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임균택 사무차장 (kyun-

taek001-@gmail.com) 이경해 회장 (508)962-2689 김성군 이사장 (617)799-7033 에게 연락하면 된다.

**행사일정**  
날짜: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오후 3시 30분  
장소: Harvard Law School WCC 2036 Milstein East A  
주소: 10 Everett St, Cambridge, MA 02138 (주차가능) 당일 행사점심포함

bostonkorean@hotmail.com

## 한미노인회 사랑방 모임 및 행사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미노인회(회장 유영심)가 오는 11월 4일 수요일 노스 앤도버 소재 국제선교회에서 정기 사랑방 모임을 갖는다.

사랑방 모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종이접기, 라인댄스, 요가, 사물놀이 등이 있다.

한미노인회 기타 행사로는 오는 11월 21일 토요일 보스톤 한인회와

민주평통 단체와 함께 뉴욕으로 나들이를 간다.

**행사일정**  
▶사랑방 모임  
일시: 2015년 11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제선교회 (57 Peter St, N.Andover, MA.01845)

▶정기이사회  
일시: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오

전 11시 30분  
장소: 청기와(27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정기총회  
일시: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국제선교회 (57 Peter St, N.Andover, MA.01845)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함혜란 로드아일랜드주 한인학교 명예교장 대통령 국민포장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10월 5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제 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함혜란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한인학교 명예교장에게 국민포장상을 수여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 한국 학교 명예교장은 1980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KS)가 설립된 후 현재까지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80년대 중반 로드아일랜드 한국학교의 교장을 맡은 뒤 꾸준히 NAKS 활동에 참여해왔다.

이밖에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자는 5명, 홍조근정훈장 수훈자는 1명,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자는 7명, 국민훈장 석류장 8명, 국민포장 수훈자는 12명, 대통령 표창 수훈자는 33명, 국무총리 표창 수훈자는 25명이다.

제9회 세계한인의날 유공 포상자 명단은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함혜란 로드아일랜드주한인학교 명예교장이 제9회 세계한인의 날 국민포장상을 받았다

/main/index.jsp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 한인 성당 40주년 행사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성 다블뤼 한인 성당이 오는 11월 7일과 8일에 성당 40주년 행사를 본당에서 개최한다.

성당 40주년 행사의 첫 일정은 오는 11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 카리타스 성가대가 정광호 도미니코 본당 신부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카리타스 성가대의 수준 높은 공연이 기대된다. 다음 날 8일 일요일에는 현재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문학 작가 마종기 로렌조 시인의 낭송회가 열린다. 마종기 시인은 1959년 연세대학교의 대시절 박두진 시인의 추천을 받아 '현대 문학'을 통해 등단했고 도미 이후에도 시집과 산문집을 10권 이상 내며 왕성한 작가생활을 했다. 뉴욕에서 강연과 사인회를 마치고 보스톤에 들러 교민들, 신자들과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손길"이라는 주제로 시 낭송을 할 계획이다. 기념 행사의 상세한 정



우리 공동체가 하느님 보살핌 속에 성장해 온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찬미합시다!

보스톤 성 다블뤼 한인 성당이 오는 11월 7일과 8일에 성당 4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보는 성당 홈페이지 (<http://stdaveluy-church.org/>) 나 성당 사무실(T. 617- 558-27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 행사**  
날짜 : 2015년 11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 & 11월 8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보스톤 성 다블뤼 한인 성당 본당  
bostonkorean@hotmail.com

# 과기협 제 7회 경력개발 세미나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 과학 기술자 협회 뉴잉글랜드 지부(회장 이현희)는 오는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MIT 4동 237호에서 제 7회 경력개발 세미나를 개최한다.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KGSA)와 과기협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과학분야에서 공부하는 석사, 박사 과정생 및 포닥(Post Doc) 연구원들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한 강연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학계의 진로 준비와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 비자와 창업 관련 법률 자문 등 과학 기술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캠브리지 소재 GENOSCO의 대표 고종성 박사가 과학자로서 걸어왔던 신약 개발을 위한 노력과 경험을 나누는 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최근 미국과 한국 대학 교수직에 임용된 김이석 교수와 정석 교수가 교수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다양한 교수 문화를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나눌 예정이다.

또한 미국 체류 비자와 창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장준환 대표가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Q&A 시간도 제공하여 보다 자세한 질문과 답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갖게 된다.

본 행사는 무료 등록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홈페이지 ([www.kseane.org](http://www.kseane.org))를 통해서 11월 12일까지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나, 신속하고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서 사전 등록을 독려한다고 과기협측은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등록시 전달되며, [contact@kseane.org](mailto:contact@kseane.org)로도 문의할 수 있다.

**행사 일정**  
날짜 :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등록 1시30분)  
장소 : MIT 4 동 237 호

bostonkorean@hotmail.com

# NE 서울대 동창회, 단풍 든 가을 공원 산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서울대학교 동창회(회장 이의인)가 지난 2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부르크라인 소재 Larz Anderson Park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모여 식사와 공원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잉글랜드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오는 12월 5일에 연말파티로 한 해를 마감할 예정이

다. 동창회에 관한 문의는 이의인 회장(781-862-5270, [euinlee@verizon.net](mailto:euinlee@verizon.net))에게 하면 되고, 서울대 동창회 홈페이지인 <https://sites.google.com/site/snuane/>에 들어가 동창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서울대학교 동창회가 지난 24일 부르크라인 소재 Larz Anderson Park에 모여 식사와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전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전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전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건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onelohan.cpa@gmail.com](mailto:monelohan.cpa@gmail.com)  
[www.mhancpa.com](http://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시포트 & 노스엔드 가볼만 한 레스토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 항구 시포트와 노스엔드에는 최근 5년 사이에 새로운 레스토랑들이 생겨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동네다. 특별히 이탈리아 음식과 스테이크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발걸음이 끊길 수 없는 이 동네의 레스토랑들은 메뉴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위치한 로맨틱한 전망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어 더 큰 인기이다. 최근 시포트와 '리틀 이탈리아'라 불리는 노스엔드의 레스토랑들이 왜 인기가 있는지, 꼭 가볼만 한지 함께 둘러보자.

### ▶칸티나 이탈리아나 (Cantina Italiana)

1931년에 개장한 곳으로 보스톤 노스엔드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이다.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에 훌륭한 요리와 뛰어난 서비스 등, 70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다양한 이태리 음식을

맛보기 좋은 곳이며 특히 다양한 파스타가 준비 되어있다. 칸티나 이탈리아나는 발을 딛는 순간 마치 이탈리아에 온 것 같은 느낌과 옛 이탈리아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주소: 346 Hanover St, Boston, MA 02113  
전화: 617-723-4577

### ▶델 프리스코스(Del Frisco's)

보스톤 항구의 전망이 보이는 델 프리스코스 레스토랑은 시포트의 유명한 스테이크 집이다. 델 프리스코스는 로맨틱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이다. 델 프리스코스에서 음식을 먹고 있으면 마치 영화 속의 멋쟁이 남자 주인공 또는 품위 있는 여자 주인공이 된 느낌을 받는다. 델 프리스코스의 와인 종류도 다양해 스테이크와 와인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와볼 만한 곳이다.

주소 : 250 Northern Ave, Boston,

MA 02210  
전화 : (617) 951-1368

### ▶테마즈컬 데킬라 칸티나(Temazcal Tequila Cantina)

테마즈컬 데킬라 칸티나는 고급 멕시코 음식 레스토랑이다. 이 레스토랑에서는 아이패드를 통해 주문이 가능하며 베이비 백 립스, 핑거스, 위틀라코 체이, 타코 등 멕시코 스타일의 음식들



을 맛 볼 수 있다. 이 레스토랑은 특별히 멕시코 역사속의 국가인 아즈텍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모습의 분위기를 띄고 있어 다른 멕시코 레스토랑과는 달리 아주 럭셔리하다. 또한 멕시코인들이 자주 마시는 '데킬라' 술의 이름을 레스토랑 이름에 넣어 아주 다양한 데킬라 칵테일들을 맛 볼 수 있다.

주소 : 250 Northern Ave, Boston, MA 02210

전화 : (617) 439-3502

### ▶살바토레 (Salvatore's)

살바토레 레스토랑은 시포트 주위의 레스토랑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하지만 베스트의 레스토랑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다. 살바토레는 2011년 보스톤에서 조사한 'Best of Survey'에서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살바토레의 라비올리 아풀리아(Ravioli Apulia) 파스타는 보스톤 인근에서 최고의 라비올리 음식으로 유명하며 이 음식을 먹으면 먼 곳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다. 이탈리아 음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피자 역시 바삭바삭한 크러스트로 만들어 레스토랑에서 큰 인기다. 특별히 살바토레 레스토랑은 결혼 세레모니와 리셉션 또한 제공해 보스톤 항구 주위의 결혼식 장소이기도 하다.

주소 : 225 Northern Ave, Boston,



MA 02210  
전화 : (617) 737-5454

### ▶멘톤 (Menton)

보스톤의 유명 요리사 바바라 린치가 운영하는 멘톤은 시포트에 위치한 보스톤 최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이다. 특별히 멘톤이 한인들에게 유명한 이유는 한인 입양아 크리스틴 키시가 셰프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틴 키시는 지난 2013년 유명 요리 프로그램



램 '탑 셰프' (Top Chef) 시즌 10'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멘톤은 유럽 르네상스 시대의 모습을 갖고 있으며 음식 또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대표적인 프랑스 요리를 담당하고 있다. 우아하며 품위있는 저녁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 멘톤을 추천한다.

주소: 354 Congress St, Boston, MA 02210

전화 : (617) 737-0099  
jham@bostonkorea.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 (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onkers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 (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깊어가는 가을, 보스턴 다운타운을 걸어 보자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함양한 기  
자 = 보스턴의 가을은 특별한 이유 없  
이 밖에 서있지만 해도 영화의 한 장면  
이다. 날씨도 심하게 덥지도 춥지도 않  
아 노스 엔드에서 시작해 다운타운 쪽  
으로 걷는 것은 보스턴 가을이 떠나기  
전 가족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추  
억이다. 가을 바람을 맞으며 알록달록  
색깔의 나무들을 구경하면서 보스턴이  
간직한 역사의 냄새를 다시 한 번 맡아  
보는 시간을 가족들에게 제공하기 위  
해 주위의 볼거리들과 산책길을 알아  
보자. 같이 걸으면서 아이들에게 각 장  
소의 대한 배경을 이야기해주면 더 교  
육적이다.

### ▶ 노스 엔드(North End)

'리틀 이태리'라고도 불리는 노스 엔  
드는 이탈리아 레스토랑들이 대거 몰  
려 있어 식도락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부터  
가정식 이태리 음식까지 제대로 된 이



탈리아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보스턴이  
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기 때  
문에, 역사적인 건물들도 감상할 수 있  
다.

### ▶ 보스턴 하버워크(Boston Harborwalk)

보스턴 하버워크는 ICA (The In-  
stitute of Contemporary Art)와 노스  
엔드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파크



(Christopher Columbus Park)에서 시  
작하여 보스턴 항구를 따라 걸을 수 있  
는 길이다. 특별히 해질 무렵 ICA 가까  
이 위치한 팬 피어 파크 (Fan Pier  
Park)에서 바라보는 보스턴의 전경은  
입이 다물어 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  
다.

### ▶ The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ICA는 워터 프론트에 위치한 보스  
톤의 전망 좋은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특이한 모양의 건물로 위층에서는 마  
치 물에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ICA에서는 보스턴  
도시의 전경을 한 눈에 관람할 수 있으  
며 박물관 안에서는 다양하고 흥미로  
운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ICA에서  
주최하는 행사들 또한 다양하다. 박물  
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icaboston.org/exhibitions>  
에서 가능하다.



### ▶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

보스턴 커먼(Boston Common)에서  
시작되는 2.5마일 정도의 길로,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보스턴에 있는 16개의  
역사적인 건물과 장소들을 두루 감상  
할 수 있다. 보스턴 다운타운을 가로 지  
르는 빨간 길을 따라 미국 독립 전쟁 당  
시의 역사적 사건들과 독립 영웅들의  
모습을 보며 보스턴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길이다.



### ▶ 퀸지 마켓 및 페뉴얼 홀 (Quincy Market & Faneuil Hall)

퀸지 마켓과 페뉴얼 홀은 과거 독립  
선언문이 낭독되었던 장소이다. 현재  
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  
로 길거리 공연, 음식 등을 즐길 수 있  
는 보스턴의 놀자 골목이다. 퀸지 마켓  
의 양 옆에 있는 사우스마켓과 노스마  
켓에서는 쇼핑을 즐길 수 있다. 퀸지 마  
켓을 지나 노스 엔드쪽으로 조금 걸어  
가면 헤이 마켓(Hey Market)이 있는  
데, 이곳은 한국의 장터와 비슷한 곳이



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문을 여는 헤  
이 마켓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생선 등  
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 ▶ 커먼웰스 애비뉴(Commonwealth Ave.)

보스턴에서 가장 오래된 길 중 하나  
이며 보스턴 역사를 모습을 그대로 간  
직하고 있는 커먼웰스 애비뉴는 보스



톤 퍼블릭 가든에서부터 체스트넛 힐  
까지 긴 구간을 지난다. 특별히 백 베이  
쪽의 커먼웰스 길에서는 유명인들의  
동상을 구경할 수 있다. 특히 조용한 아침,  
산책 겸 커먼웰스 길을 걷다보면 마  
음에 평화를 느낄 수 있다. 커먼웰스 길  
의 좌우로는 보스턴의 오래된 집들과  
빌딩들의 모습을 무료로 마음껏 관람  
할 수 있다.

[jham@bostonkorea.com](mailto:jham@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목통 등 각종 통증질환
- 유선, 전통이거버닝, 비니에프 경주온
- 비보, 원예, 물안경, 각종 스포츠스무얼
- 만성 편두통, 비염, 근육경
- 요산염에 의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 습관, 각종 비정상적인 미노지양에
- 임신전 흡수력 증진, 신장기능 개선
- 기타 상담이력, 치료, 예방이력 있는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 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비사츠크초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학업 지도 튜터링

####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레드삭스와 보스톤 시 사이 협약에 의문점

2013년 메니노 시장 당시 레드삭스와 계약 야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거리 막아 불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레드삭스가 2013년에 보스톤 시 정부와 맺은 협의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매사추세츠 정부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레드삭스의 경기가 있는 날에 할인 입장권 판매를 위해 야키 웨이(Yawkey Way)에 펜스를 세워 보행자의 통행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마틴 월시 보스톤 행정부는 주 정부의 보고서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13년에 맺은 협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2013년은 월시 시장 이전인 토마스 메니노 시장의 임기 마지막 해였다.

19페이지의 보고서를 통해 글렌 춘해 조사관은 보스톤 시가 레드삭스에 야구 경기가 있는 날 야키 웨이에 펜스를 세울 수 있는 영구적인 권한을 준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레드삭스는 펜스를 세우고 길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73만 달러를 보스톤 시에 지불했다.

보고서는 유명한 거리에 대한 권리

를 할당에 팔아 넘겨서 마치 쓸모 없는 부지를 거래한 것 같은 혐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협의 과정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었고, 특히 이사회 회의 최종 검토 시간은 불과 몇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춘해 조사관은 인터뷰에서 "결국 이 거래에서 패자는 일반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것은 양쪽이 모두 서명을 한 법적 계약이다. 이 과정에서 사기 등의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다.



레드삭스 경기가 있는 날 야키 웨이의 모습

월시 행정부는 지난 2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2013년 합의 당시 계약은 "받아들일 수 없는" 과정을 거쳤으며, 메니노 행정부가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리는 공공 재산임에도 보스톤 시와 레드삭스의 2013년 합의 과정에서 일반 대중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다.

레드삭스와 보스톤 시가 맺은 2013년의 계약은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가 펜웨이에서 열리는 한 계속" 유지된다. 앞으로 계속 펜웨이에서 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보스톤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다.

jsi@bostonkorea.com



홀푸드의 리콜 대상 샐러드는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판매되었다

## 홀푸드 샐러드 2종류 리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유기농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홀푸드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이 의심되는 샐러드 2종류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매사추세츠 주를 포함해 동북부 지역 7개 주에서 판매된 커리 치킨 샐러드와 델리 파스타 샐러드가 리콜 대상이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샐러드는 메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커네티컷, 뉴욕, 그리고 뉴저지 주에 위치한 홀푸드의 샐러드 바에서 포장되어 판매된 샐러드이다. 혹은 해당 샐러드가 들어간 샌드위치도 리콜 대상에 포함된다.

리콜 조치된 커리 치킨 샐러드와 델리 파스타 샐러드는 지난 10

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판매되었으며, 유통 기한은 10월 23일까지이다. 이 샐러드는 홀푸드의 무작위 추첨을 통한 정기 위생 점검 과정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되었다.

아직까지 해당 샐러드를 먹은 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다. 리스테리아균은 발열, 심한 두통, 근육통, 복통,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홀푸드에서 10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커리 치킨 샐러드와 델리 파스타 샐러드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해야 하며, 구입할 때 받은 영수증을 홀푸드에 가져가면 환불 받을 수 있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홍삼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보편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 하루 2번 습관 건강을 지키는 습관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FREE**

- 가벼워봄
- 면역력 증진
- 안노 합병증 예방
- 간염 산양 기능 개선
- 항암효과
- 혈액순환 개선
- 혈당 조절능력 개선
-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최대한 크고 이삭이 빠리 조습 농인비소오일

8년간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보편드스토어

8 Old Concord Pld, Burlington, MA 01808

8 TV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안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안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NBC, CBS, FOX, ABC, CNN, ESPN, etc.

# 우버, 보스턴 서비스 시작한지 4년



우버가 보스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지 4주년을 맞이했다

### 4년 동안 보스턴 중심으로 급성장, 전철 끊기는 시간에 우버 요청 2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기존의 택시와 유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가 보스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지 4년이 되었다. 4년 동안 175만 명의 사람들이 우버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매사추세츠 내에서 2,800만 번 우버 서비스가 이용되었다.

보스턴 글로브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매사추세츠에서 우버 서비스가 200만 번 이용되었다. 4년 사이 우버 이용자가 급증한 것이다.

우버 홈페이지에 따르면 4년 동안 매사추세츠 주에서 우버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이동한 거리는 1억 1,500만 마일에 달한다. 지구에서 달까지 500

번 정도를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우버가 보스턴 지역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는 부분은 심야 영업이다. 매 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보스턴 지역에서만 우버 서비스가 약 7만 번 이용되고 있다. 파크 스트리트 등 다운타운 지역에서는 전철이 끊기는 시간에 우버 서비스 요청이 2배 이상 급증한다.

또한 미션 힐, 매타팬, 락스버리, 도체스터 등 전통적으로 택시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우버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의 우버 요청은 지난 1년 사이 250% 증가했고, 2011년부터 약 300만 건의 우버 서비스가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2014년 8월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

르면 도체스터, 매타팬, 로즐린데일 지역에서는 택시를 불러도 약 35%의 승객이 20분 이내에 택시를 탈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우버 이용자의 99%가 20분 이내에 우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우버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택시 업계에서는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우버 등의 유사 택시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우버 등의 업체에 대해 운행 허가권을 내주고 주 정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또한 운전자들에 대한 범죄 기록 조회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jsi@bostonkorea.com



차터 스쿨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매사추세츠 법으로 차터 스쿨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 차터 스쿨 확대 지지서명 10만 명 이상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차터 스쿨 지지자들이 주민 투표 상정을 위해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차터 스쿨 확대 법안을 주민 투표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서명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학부모와 교육자, 지역 커뮤니티 지도자들의 모임인 그레이트 스쿨 매사추세츠(Great Schools Massachusetts)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차터 스쿨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입법 기관에서 회기 내에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2016년 주민 투표 안건으로

차터 스쿨을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차터 스쿨은 120개로 한정되어 있다. 보스턴과 같은 도심지역에서는 차터 스쿨 지원자가 너무 많아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2-3년씩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차터 스쿨에 대한 제한을 풀고 매년 12개의 차터 스쿨을 신설하거나 기존 차터 스쿨을 확장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역시 예산과 교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제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jsi@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실용수업**

##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미네아폴리스 New Star Realty의 대표로 일하며, 10년 만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 남편(MBA)을 데리고 온 이민자로서 BOSTON-CAMBRIDGE 지역이 가장 활기차고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업률 3.4%를 달성하는데, 10년 이상의 기존 서비스를 운영할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제 집가 시인해 매대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96

**Newton Office**  
17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0  
Tel: (617) 550-4996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남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친, 한마루, 사출 실방만, 침팬다네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8월까지 학생들만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BEDFORD 지역 단독주택**



**For Sale: \$599,000** 3+ Beds, 2 Bath, 2238 sqft (Lot size: 1.3 acr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경관, 양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 이민 및 사업 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eorengrm

# 미 공화 3차 TV토론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크루즈>루비오

로키전략 벤 카슨 평균 5위... '패자' 접 부시 순위권 못들어  
타임·드러지 리포트·CNBC 방송 3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의 28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순으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미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에서 이번 토론의 승자라고 평가한 루비오 의원은 이전 토론회에 비해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1위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접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들 언론의 '패자' 평가와 비슷하게 아예 순위권에 들지 못했고, 최근 트럼프를 추월하며 돌풍을 일으킨 신경외과 의사 출신 벤 카슨은 시종일관 특유의 낮은 목소리에다 로키 행보로 일관하면서 평균 5위에 그쳤다.

먼저 인터넷매체 드러지 리포트가 토론 직후 24만63명을 대상으로 '누가 가장 선전했느냐'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트럼프가 54%를 기록해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그다음은 크루즈 의원 22%, 루비오 의원 11%,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과 벤 카슨 각 4% 등의 순이었다. 또 시사주간 타임지의 1만1천775명 대상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46%를 얻어 1위를 달렸고 루비오 의원이 20%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폴 의원 8%, 크루즈 의원 7%, 카슨 6% 등이었다. 이밖에 토론 주관사인 CNBC 방송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시청자들의 승자 평가는 트럼프 46%, 크루즈 의원 20%, 루비오 의원 15.4%, 카슨 4%,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 3.5% 등이었다.

트럼프는 이전 1, 2차 토론에 비해 활약이 두드러지거나 '막말'을 쏟아내지는 않았지만, 시종일관 자신감 넘친 태도로 이민정책 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고, 크루즈 의원은 조세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전달과 더불어 사회자의 공격적인 질문에 "오늘 나온 질문들을 보면 왜 미국인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고 받아쳐 청중의 지지를 끌어냈다. 루비오 의원은 한때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었던 부시 전 주지사가 자신의 의회 표결 불참 사실을 지적하며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오자 "아마도 누구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을 해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대통령에 출마한 것이지 부시 전 주지사에 맞서 싸우기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다"며 차별화를 시도해 박수를 받았다.

sims@yna.co.kr



미국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우)과 도널드 트럼프(좌)

## 트럼프 단순화법은 영국 전설'아서왕' 닮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미국 대선의 공화당 경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는 단순한 문장을 즐기는 반면 민주당 경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긍정적이면서 복잡한 화법을 구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 미국 대선 경선에 출마한 양당 후보 13명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토대로 이들의 화법을 긍정과 부정, 복잡과 단순 등 2가지 기준으로 나눴다.

단순한 문장을 가장 즐겨 사용하는 후보는 트럼프였다.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는 평균 12개 정도에 불과했다. 그는 "명백하게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거래의 기술'이란 책을 썼다" 등 짧은 문장을 선호했다.

트럼프는 긍정적인 표현 사용 면에서도 13명의 후보 가운데 4위에 올랐다.

NYT는 밝고 단순한 문장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화법이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핀의 모험'과 덴마크 동화작가 안데르센 동화의 중간 정도"라며 영국 고대 전설인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보다도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긍정적인 어휘 구사 면에서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클린턴 전 장관이 사용하는 문장은 복잡성 점수에서도 비교적 높은 순위(4위)를 기록했다.

긍정적이면서 복잡한 화법을 구사하는 그의 화법과 어울리는 작품은 여성작가 제인 오스틴의 장편소설 '설득'이었다.

최근 공화당 유권자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제치고 1위에 올랐던 벤 카슨은 A.W. 토저 목사의 '신을 찾아서'와 짝을 이뤘다.

카슨은 긍정과 복잡성 면에서도 중간 정도를 보였지만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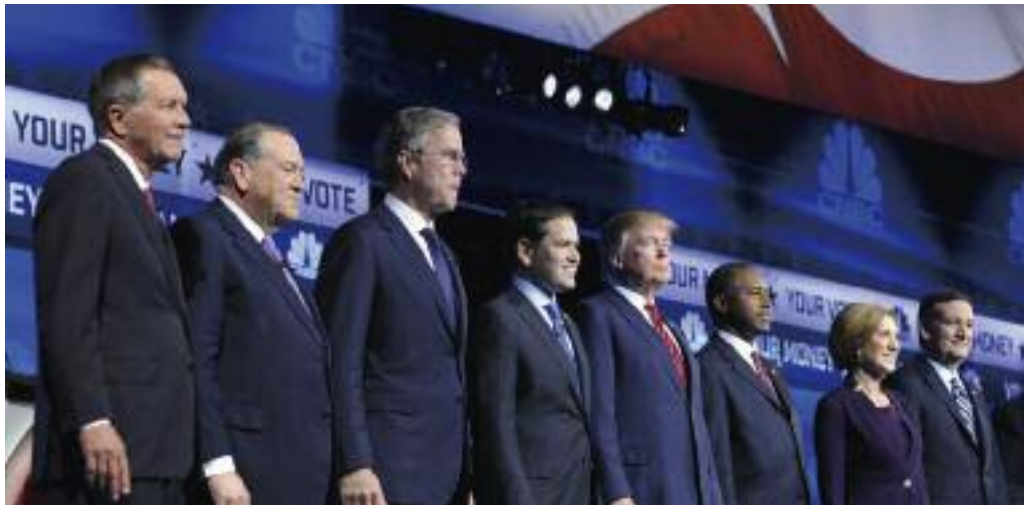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는 복잡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써 트럼프와 대척점에 있는 후보로 꼽혔다. 그에 맞는 책은 프랑스 작가 쥘 베른이 쓴 '80일간의 세계일주'였다.

가장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는 후보는 법무차관 출신인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었다.

그의 복잡한 화법은 고대 영어로 쓴 영국의 영웅서사시 '베오울프'와 유사하다고 NYT는 분석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과 접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닮은 책은 각각 쥘 베른의 '지구 속 여행'과 일본의 정리정돈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가 쓴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 꼽혔다.

kong79@yna.co.kr



미국 공화당의 28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 참석한 후보들



##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 617.868.2500

#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 Kathy Lee

Call: 781.354.1622

###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드립니다



학군 좋은 보스톤 앞대 아파트, 컨도, 주택 전문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Fax 617.969.7912  
Kathy.Lee@NEMoves.com



## 손영권 치과

In Lowell

# 중은 치과

# 중은 치아



WE MAKE SMILE

#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록히드마틴 "한미, 사드 한반도 배치 공식·비공식 논의중"

워싱턴DC 기자회견서 "초기단계 논의...언제 협상 끝날지 몰라"  
"정부간 결론 나는대로 지원할 것"...양국정부 '입장정리' 주목  
"중국 걱정할 것 없다...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완전 방어용"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 정부가 공식·비공식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고위관계자가 29일 주장했다.

마이크 트로츠키 록히드마틴 항공·미사일방어 담당 부사장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책적 사항은 언

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양국의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은 확인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로츠키 부사장은 '공식 논의냐, 비공식 논의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식·비공식 차원에서 모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트로츠키 부사장은 "현재 진행되는 논의는 초기단계이며 아직 어떤 진전이 있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밝히, 양

국이 최근 협의에 착수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국방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아직 미국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것이 끝나야 (양국간 논의가 이뤄질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양국 정부 간 논의가 언제 마무리 될지에 그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트로츠키 부사장은 "제작사 입장에서 양국 정부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양국 사드 배치에 관심을 갖는 쪽으로 결론에 도달한

다면 우리는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만일 논의의 형식이 궁극하다면 실제 대화를 하는 양국 정부 당국자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데 패트리엇(PAC-3) 미사일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같은 나라는 다층적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이지스 무기 시스템(상층방어), 사드 시스템(중층방어), 패트리엇 시스템(하층방어) 등 다층적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지스는 외기권에서, 사드는 내기권과 외기권에서 동시에, 패트리엇은 내기권에서 운용된다"고 설명하고 "이는 적국이 한번의 조치로 이 세계의 방어체계를 무너뜨리는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로츠키 부사장은 또 중국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부터 이 시스템의 설계를 지켜왔던 나로서는 사드가 공격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이것은 방어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트로츠키 부사장은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방어

용으로 돼있다고 보면 된다"며 "오로지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한 뒤 요격용 미사일만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 사드를 공격용 무기시스템으로 운용하려면 완전히 재설계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의 정확한 가격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얼마나 많이, 언제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일체 함구하는 가운데 록히드마틴 측은 "양국 정부가 논의 중"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 문제가 다시 물 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양국 정부가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사일 방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견에는 미국의 국방전문 매체들이 주로 참석했다.

rhd@yna.co.kr



## 미국 3분기 경제성장 1.5%로 둔화...기준금리엔 '중립적'

개인소비 증가는 긍정적 요인 평가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환산 기준 1.5%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 2분기 GDP 성장률 3.9%와 단순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 속도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지난 분기 GDP가 1.5~1.6%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상무부는 지난 3분기에 5.6% 감소한 민간 국내 총투자가 전체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다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달러화 강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해지자 기업들이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려 생산량을 감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연방정부의 국방비 지출(-1.4%) 감소 역시 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개인소비지출(PCE)과 고정자산 투자, 수출 같은 요인은 지난 3분기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

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PCE는 3.2% 증가했고,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고정자산 투자는 각각 2.9%와 6.1%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PCE 동향에서 나타나는 민간 소비의 증가가 이날 발표된 여러 세부 지표들 중에서 특히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분기의 내구재 소비는 6.7% 늘어났다.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이전 분기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졌지만,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GDP 성장률 잠정치가 미국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 미칠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강한 달러화 가치와 그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이지만, 상무부가 PCE를 GDP 산정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한 점은 앞으로 미국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고 따라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전날 발표한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성명에서 "미국의 경제활동이 점진적(moderate)인 속도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유지했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0~2.3%로 제시하고 있다. 작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4%였다.

smile@yna.co.kr



## 미국 성인 68% 스마트폰 보유...휴대전화는 92%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성인 10명 중 7명가량이 스마트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전체로는 10명 중 9명 꼴이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2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68%였다.

남성(70%)과 여성(66%)이나 흑인(66%)과 백인(68%) 사이의 보유율에 비해 18~29세(86%) 연령대와 65세 이상(30%)간이나 도시(72%) 거주자와 농촌(52%) 사이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조사됐다.

2011년 실시된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서 전체 미국 성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35%였다.

이번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답한 미국 성인은 전체

의 92%였다.

휴대전화 보유율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92%였고, 65세 이상(78%)이나 농촌(87%) 주민들도 휴대전화는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블릿PC를 갖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5%였다. 태블릿PC 보유자는 2010년 4%에 그쳤고 2011년에도 10%였지만, 2013년에는 35%, 지난해에는 42%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증가했다.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PC를 갖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73%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미국 성인 1천9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6%포인트다.

smile@yna.co.kr

# TASTE OF KOREA

# 코리아나

#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볼텍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상급 볼텍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월요일-목요일 11:30AM-10:30PM  
금요일-목요일 11:30AM-12:00AM  
103 Prospect St, Cambridge, MA 02148



**Driving Information**

1. 1280 Centre St, Newton (near Valley Mall - 1st Exit After Turn 7, Opp. Hillborn All Day)
2. 460 Main St, Watertown (near the 1280 Centre St Exit - 1st Exit After Turn 7)

• 1280 Centre St, Newton (near Valley Mall - 1st Exit After Turn 7, Opp. Hillborn All Day)  
• 460 Main St, Watertown (near the 1280 Centre St Exit - 1st Exit After Turn 7)

\* 1280 Centre St, Newton (near Valley Mall - 1st Exit After Turn 7, Opp. Hillborn All Day)  
\* 460 Main St, Watertown (near the 1280 Centre St Exit - 1st Exit After Turn 7)



##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Cell: 339.224.1512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Somerville 5 Family \$ 999,900**  
전 4실 \$ 700,000, 주거 면적 3072 sq. ft. (2차 아파트)  
500 콘크리트, Quaker 4-Door, Hard oak floor,  
private garage, stainless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unit laundry, 24hr 경비 있는 아파트.



**Brookline 2 Family \$ 1,100,000**  
Tax: \$ 4,400, 주거 면적 2,300 sq. ft., 대지 면적 4,000 sq. ft.,  
멋진 학교, 잘 관리된 정원, Green line D 역, 5년  
내 50% 이상의 가치 상승, 5 year New  
입대 여부, heating system, 2차



**Newton 2 Family \$ 749,900**  
2가구 지붕이 있음, 2차 주차 95,000,  
대지 면적 8595 sq. ft., 난방: 가스



**Newton \$ 1,300,000**  
2가구 지붕, 전 4실 \$ 84,500, 대지 면적 6200 sq. ft.,  
입대 여부 확인 되어 있음  
편의하기 좋은 위치 (T 역), 보스톤 대학교



**Newton \$ 1,999,000**  
완벽한 집, 최고 학교, 주거 면적 5800 sq. ft.,  
대지 면적 10000 sq. ft., 2차, 화장실 5개  
Granite S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Newton \$ 999,000**  
2013년 새 집, 2차 화장실 3개, 멋진 학교  
보스톤 대학교, 가격 주거 면적 3800 sq. ft.,  
대지 면적 7000 sq. f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Reading \$ 385,000**  
2차 2차 콘크리트, 멋진 학교, 편리한 교통,  
영도비보다 저렴한 가격, 2차, 화장실 2개,  
주거 면적 1300 sq. ft., 30만 달러는 한 달만 남았음  
95 고속도로 연결, Garage Parking



**Burlington \$ 599,000**  
2013년 새 집, 2차,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3000 sq. ft., 대지 면적 4075 sq. ft.,  
Hight school 연결.



**Boston Fenway \$ 364,000**  
2차, 화장실 2개, 주거 면적 5700 sq. ft.,  
콘도 fee \$ 200 (Heat, Hot water 포함)  
보스톤 대학교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 1,290,000**  
2013년 새 집 최고의 학교 2차 화장실 4.5개  
주거 면적 4000 sq. ft., 대지 면적 17500 sq. ft.,  
아후 바디, 최고의 학교,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입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 '국정화TF', 경찰에 "털리면 큰일"...청장에 보고도 안해?

안행위 소속 박남춘 의원 입수한 112신고 녹취자료서 밝혀져  
강신명 경찰청장, 25일 교육부 신고 상황 28일 언론보고 알아  
"의원 요구자료 국장 선에서 결정"...비호 배경 감추려한 듯

(서울=뉴스1) 박태정, 조소영 기자 =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밤 TF가 있던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10여 차례 경찰에 다급히 신고하면서 "지금 여기 이거 털리면 큰일 난다"며 "이거(경찰)동원 안하면 나중에 문책당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같은 신고 상황에 대해 사흘이 지난 28일에서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입수한 당시 112신고 녹취자료에 따르면, 신고자인 TF관계자들은 국회의원과 기자 등 20명의 사람들이 사무실에 침입하려 하니 빨리 출동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자신들의 신분을 비롯해 어떤 이유로 신고를 했는지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꼈다.

TF관계자는 초반 신고에서 "사무실 밖에서 20명의 사람들이 침입하려

고 그러다. 빨리 좀 출동해달라"며 "기자와 국회의원이 침입하고 있는데 못들어 오게 좀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4차 신고 당시 경찰이 "기자와 국회의원이 무슨 일이 있어서 침입한 거냐"며 "말씀해주셔야 경찰이 출동해서 협조해드린다"고 물었지만 끝내 밝히지 않았다.

5차 신고에서도 경찰이 재차 "20명 정도인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느냐"고 했지만 TF관계자는 "그건 잘 모르겠다. 그냥 오셔갖고"라고만 했다.

뒤이어 두 차례 정도 출동을 재촉하던 TF관계자들은 8차 신고에서 신분 등을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2명밖에 안왔다. 20명이 있는데 2명밖에 안와서 지금 감당이 안 된다"고 문제제기 했다. 이어 경찰이 현장 상황 판단 하에 보강이 될 것이라고 하자 TF관계자는 "여기 우리 정부 일하는 데예요. 지금 여기 이거 털리면 큰일나요"라며 "있는 인원들 다 빨리 해주세요. 교육부 작업실이란 말이예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2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빨리 좀 동원해주세요"라며 "이거 동원안하면 나중에 문책당해요"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와 관련 강 청장은 이날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야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정화비밀TF를 둘러싼 이번 사태의 위중함에 비춰보면 강 청장이 교육부 관계자 신고의 취지를 보고 받지 않았다는 건 경찰의 지휘계통상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게 경찰 안팎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1박2일간 언론과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TF 의혹 사무실 대치 현장에 대한 경찰의 비호 배경을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강 청장께는 보고 되지 않았고 오늘 오후 보도를 통해 사실을 아셨다"며 "국회의원의 요구에 해당 자료를 보내는 것은 통상 국장 선에서 결정하고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TF 직원의 이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야당의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할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가) 주거침입에 해당

된다고 판단해서 차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의 해석은 해석인 것이고 처음 신고한 사람의 신원도 확인할 수 없었고 경비원도 신고를 하고 나중에 보면 9차(신고)쯤 되면 야당 의원 쪽에서도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찰청의 생활안전과에서 박남춘 의원과 김민기 의원의 요구를 받고 '신고 접수 녹취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녹취 내용 자체는 보내준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경찰청 차원에서 별도의 해명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ptj@news1.kr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유은혜, 도종환,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5일 저녁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 앞에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비밀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모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b>Level 3</b>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b>Level 4</b>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Duquoy College
Le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assachusetts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iv. 5) Graduate (iv. 6)	The <b>Level 6</b> "TOEFL Waiver" applies for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 (617) /30-3/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OCT. 30TH - NOV. 5TH, 2015

—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  
 Sign up for Smart Card today and receive great deals only members can ge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EL.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and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Instagram, and WeChat for special offers.  
\*LIMITED TIME OFFER. PROCESS. PRIC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SMART CARD ONLY"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43 MIDDLESEX TPKE. BURLINGTON, MA 01803

**HAIOREUM** Japanese Style Noodles U-Dong  
 하루하루 햅쌀 15 lbs. **\$14.99** NEW CROP  
**HAIOREUM** Roasted Seaweed Laver Original/Parae - 0.15oz. x 8ea./pkg. **2\$5** pkg./for  
**HAIOREUM** 해오름 밥도둑 도시락김 8.82oz. x 5ea./pkg. **\$2.99** SMART CARD ONLY

**PRODUCE**  picked at the peak of freshness

**NEW CROP** Fuji Apple **\$1.49** 8oz./pkg.  
**USDA ORGANIC**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3.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NEW CROP** Fuyu Persimmon **\$12.99** 단감 박스 box  
**USDA ORGANIC** Organic Enoki Mushroom **2\$4** pkg./for 유기농 엔키버섯 5.25oz./pkg.  
**NEW CROP** Koimo Sweet Potato **\$1.49** 햇 코이모 고구마 lb.  
**USDA ORGANIC** Manna I Love Tofu **\$0.88** 아이러브 두부 All Varieties/14oz.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oneless Beef Rib Eye Steak** **\$9.99** 뼈없는 스테이크  
**Pork Baby Back Rib (Whole Piece)** **\$4.99** 돼지 등갈비  
**Sliced Beef Short Plate** **\$7.99** 냉동 삼겹양지 슬라이스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4.99** 돈까스용 돼지고기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5.99** 양념 발집 삼겹살  
**Beef Bones** **\$1.59** 냉동 사골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SUHYUP Yellowtail** **\$1.99** 수협 냉동 방어  
**Snapper** **\$5.99** 흥도미  
**Head-On Shrimp** **\$5.99** 머리새우 30-40's  
**Pacific Squid** **\$1.99** 냉동 오징어  
**TONG TONG BAY Seafood Mix** **\$9.99** 통통배 해물모듬  
**GLOBAL Unagi Kabayaki** **\$6.99** 글로벌 우나기

Hmart 할로윈 데이 세일전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SPOOKY SAVINGS**  
 The low prices will scare you!  
 Candy & snacks this halloween at Hmart  
 할로윈데이 과자준비도 역시 H마트입니다.  
 only at Hmart.

**Happy People**  
**POCKY DAY**  
 OCTOBER 30TH-NOVEMBER 11TH, 2015 ONLY AT H-MART BURLINGTON STORE  
 H마트에 오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포키데이를 준비하세요!  
 행사 제품 구매시 구매 금액에 따라 **무료 사은품 증정!**  
 FREE GIFT DEPENDING ON THE AMOUNT SPENT ON SPECIAL EVENT SALE ITEMS!  
**FREE GIFT**

**PULMUONE** Delicious Nature Fresh Ramyun **\$5.99** 풀무원 자연은 맛있다 생라면 All Varieties/3.6oz. x 4ea./pkg.  
**KADUYA** Pure Sesame Oil **\$14.99** 가도아 참기름 56fl.oz.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8.99** 하림 즉석 삼계탕 28.21oz.  
**주말시식코너** **FRI-SUN SAMPLING EVENT**  
**주말시식코너** Traditional family recipe **\$2.99** Ktown Bibimbap/Japchae 케이터운 비빔밥/잡채 9.87-10.86oz.  
**NONG SHIM** Farmer's Heart Red Chili Pepper Powder **\$4.99** 농심 농부의 마음 고춧가루 1.1 lbs.  
**HAIOREUM** Canned Bai Top Shell **\$4.99** 해오름 골뱅이 통조림 14.oz.  
**Q1** Korean Sweet Pancake Mix **\$3.99** 큐원 호떡 믹스 19.4oz./Seeds - 12.69oz.  
**WOONG JIN** Morning Rice/Green Plum Drink **\$2.99** 웅진 아침햇살/조록매실 1.5L.  
**BOHAE** Maewon Preme Plum Extract **\$16.99** 보해 매원 프라임 500mL x 2btl/box  
**YOBO HOME** Shabu Shabu Hot Pot **\$8.99** 여보홈 샤브샤브 핫팟 Single/28cm - ea.  
**HELLO HOME** Single Coil Burner **\$9.99** 헬로홈 싱글 코일 버너 ea.  
**HELLO HOME** Stainless Steel Electric Kettle **\$24.99** 헬로홈 스테인리스 전기포트 1.7L/ea.

# 야, "털리면 큰일" "적화통일" 연계 국정화 집중포격

"새누리당 정권 들키면 매년 거짓말... 뭐가 두렵나"  
이정현 발언에 "친박(친박근혜) 실성파" 맹비난  
재보선 완패 언급 자제... 문, 교사·학부모 간담회

(서울=뉴스1) 박태정,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교육부 TF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추진을 의심하는 경찰 신고 녹취록 공개를 불쏘시개로 삼아 국정화 사전 추진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여야 대결의 초점을 국정화로 계속 끌고 가려 하고 있지만 10·28 재보궐 선거 참패가 향로에 장애물로 등장해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선거결과에 대한 공식 언급을 최대한 자제한 채 국정화 반대로 모아지고 있는 여론이 분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교사와 학부모들을 만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폐단을 설화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은 먼저 전날 비밀TF 관계자가 야당 의원들이 사무실에 진입하려 하자 경찰에 "지금 여기 이거 털리면 큰일 난다. 이거 (경찰) 동원 안하면 (막지 못하면) 나중에 문책당한다"는 다급한 신고를 언급하며 포격을 집중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

정회의에서 먼저 "당일 2시간10분 동안 작업실에서 경찰에 8번 신고 접수를 했는데 신고한 관계자들은 신분이나 하는 일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정상적인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땀땀치 않은 일을 하다가 들킨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정권은 매년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가 들키면 비밀이 아니었다고 거짓말 하나"고 따져 물으며 "정부 말대로 비밀이 아니라면 다 공개하면 된다. 적법 업무라면 모든 자료 다 국민에 오픈하라. 땀땀치 않은 뭐가 두렵나"라고 몰아붙였다.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은 신고 녹취록과 함께 야당 의원들이 TF직원들을 감했다는 여당의 주장을 언급하며 "잠금은 안에서 잠그는 거, 감금은 밖에서 잠그는 것이다. 우리말을 몰라 새누리당이 그러냐"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전날 이정현 최고위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력엔 적화통일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삼아 포격을 집중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기 전에 두뇌의 정상화가 정말 시급해 보인다. '친박(친박근혜) 실성파'가 탄생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정상적 판단력을 가진 분들인지 의문"이라고 맹비난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전날 예결위 정회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이 최고위원에 대해 "야당의원들뿐 아니라 다수의 역사전공자들,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국민과 전문가들을 향해 어떻게 적화통일 세력 운용할 수 있는지 개탄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분이 여당의 최고위원이란 사실을 주목하고 있고 이런 인식이 대통령을 포함 여당 내부 국정교과서 추동하는 기본적 이데올로기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또 국정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예비비 논란과 관련 "국민은 국정교과서 예비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결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6억원이면 가능한 교과서 편찬 순수비용이 어떻게 44억원으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통과됐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광명의 혁신학교인 운산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학부모들을 만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이날 10.28 재보선 참패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대외 공세의 초점이 흐트러지는 것을 경계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뒤 재보선 패배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논의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비주류를 대변해온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 책임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아무튼 대책 중이다. 제일 중요한 문제죠"라고 말해 가능성도 열어놨다.

새정치연합은 기초단체장 1곳과 광역의원 9곳, 기초의원 14곳 등 총 24곳에서 선거가 펼쳐진 이번 10·28 재보선에서 광역의원 단 2곳(인천 서구제2선거구 인천시의원·전남 함평군제2선거구 전남도의원)에서만 승리해 사실상 완패했다.

ptj@news1.kr

## 갈때까지 가는 국정화 공방...여 색깔론, 야 "친박 실성파"

(서울=뉴스1) 장용석, 조소영, 김영신, 서미선, 이정우 기자 = 여야는 29일에도 정부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겨냥한 말들이 거칠어 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이 국내 친북세력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지시를 내렸다는 '북한 지령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가 하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교과서 관련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제안을 "정치적 노림수"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하기도 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서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교과서 문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오려는 것으로 정쟁을 지속시키겠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회견을 열어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하면 심각한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며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절차 중단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날 문 대표의 제안을 즉각 거부하고 나섭에 따라 팍팍한 '교과서 정국'의 해법은 '더 더욱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다.

다만 이날 경북 경주를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새정치연합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현행 교과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집필진 구성에 야당 의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바로 사회적 (논의) 기구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북한이 최근 국내 친북세력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거론하고 야당을 비롯한 '국정화 반대론'자들을 향해 대대적인 '색깔론' 공세를 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남남 갈등 전술에 가장 큰 도움 주고 있는 곳이 새정치연합"이라고 말했다고 김정은 정책위의장은 "전대미문의 역사쿠데타' 등 북한이 야권 논리와 비슷하게 우릴 비난하고 있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당내 친박계의 '말형'적인 서원원 최고위원은 "북한이 어떤 친북단체에 지령을 내렸는지, 이 지령을 받은 단체와 개인이 누군지,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진 뒤 이 단체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사법당국이 적극적인 수사를 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의 이같은 공세는 전날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겨냥해 "정신분열적" 등으로 비난한데 대한 맞대응으로도 풀이된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주재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력엔 적화통일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어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은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기 전에 두뇌 정상화가 시급해 보인다. '친박 실성파'가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25일 자당 소속 의원들의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사무실 '기습 방문' 당시 TF 직원들의 경찰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땀땀치 못한 일을 하다가 들킨 모습이었다"고 거듭 TF 활동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ys4174@news1.kr

## "국정교과서 폐기 위한 전면적 투쟁" 서울대생 시국선언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10월31일 제3차 범국민대회,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포함해 학내외에서 힘을 결집해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마지막으로 통첩한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서울대 네트워크 소속 80여명(경찰 추산 100명)은 29일 오후 3시40분쯤 교내 학생회관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서울대 만민공동회를 열고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앞서 22일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 규탄 ▲교과서 국정화 철회 ▲역사쿠데타 중단 등을 주장하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서울대 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시국선언문에서 "우리 사회는 국가권력이 민주주의를, 앞서간 세대와 우리 세

대의 존재를 위협하는 중대한 시국을 맞이했다"고 밝히고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확정하는 날은 국정화 저지 투쟁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시작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헌에서 나선 농성대 10학년 최민은 학생은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국민들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눈과 귀가 있다면 매일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드는 국민 보이지 않을 수 없는데 자기들만의 정책을 추진하는 게 현재적 독재가 아니고서 무엇이겠냐"고 지적했다.

공대 11학년 홍정국 학생도 "철저히 강압적인 정부가 만약 비판받을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면 얼마나 더 친일적인 행각과 유신으로 회귀하는 행각을 벌이겠느냐"며 "절대 이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flyhighrom@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갑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갑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 책임 진료

닥터스 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완부가 손상되거나 척추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록라인, 월섬)



❤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록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63

# 박 대통령, 내달 2일 한일 정상회담...1일 한일중 정상회의

취임 후 첫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한일, 한일중 모두 3년반만에 열려  
청, "한일회담, 오찬없이...위안부 비롯 한일간 심도있는 의견교환"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달 2일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갖는다고 청와대가 28일 발표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총리와 다음달 2일 오전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방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이번 회담에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아베 총리와의 오찬 여부와 관련해서 "오찬은 하지 않는 것으로 양국 간에 협의가 됐다"면서 "기자회견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취임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5

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성사되는 셈이다.

한일정상외교가 단절된 건 2012년 8월 우리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2013년 12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해 양국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부터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양국 정부가 팽팽히 맞서면서 회담이 이뤄지지 못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중재 하에 지난해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난 3월 리관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 참석 때 조우한 바 있지만 회담을 한 적은 없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자위대의 한반도 진

입 △북핵·북한 문제 등이 주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15일(현지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이번에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3년 만에 한국이 주선해 11월초에 열릴 예정"이라며 "아베(신조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또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을 때 양국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변화 발전해나갈 의미가 있는 회담이 된다"면서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내달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박 대통령 주재 아래 아베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3국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 이후 약 3년6개월 만이다.

김 수석은 "이번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경제·사회, △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하는 자리 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경제 동향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3국 정상은 이날 오후 한·일·중 3국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에 참석하여 3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저녁에는 환영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일·중 3국은 지난 1999년 아세안+3 회의 계기에 최초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2008년부터는 이와는

별도로 회의를 개최해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 2009년 10월 중국 베이징, 2010년 5월 한국 제주도, 2011년 5월 일본 도쿄,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 등 각국을 순회하며 지금까지 5차례의 정상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지난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약 3년 반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이에 따라 3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irakoca@news1.kr



박근혜 대통령(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우)

## '위안부, 남중국해, 자위대...한일 정상회담 성패 키워드

회담 후 위안부 해법 없다면 비난 피하기 어려워...조짐은 불길  
아베, 남중국해 돌발발언 땀 곤란...자위대 활동범위 조율도 쉽지 않아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한일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개최를 확정지었지만 위안부와 남중국해, 일본 자위대 문제 등 산적한 현안으로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양국 정상화에 모양새는 갖춰졌지만,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간 갈등 요소에 대한 뚜렷한 진진이 없다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 회담이 될 수 있다.

가장 큰 암초는 사실상 양국 정상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위안부 문제다.

그동안 양국은 위안부 해법 마련을 위한 아홉번의 국장급 협의에도 일본 정부의 사과 형식과 배·보상 문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무자간 협의보다 양국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달초 위안부 협상에 대해 "지금 단계는 약간 서있는 시점"이라며 "병목현상이 언제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협의가 있게 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는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대일정책에 있어서 실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우려되는 점은 정상회담 발표 전까지 양측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발언 여부와 수위를 놓고 첨예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지금까지 드러난 조짐들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양국 정상이 회담 전후로 오찬도 하지 않고 공동 기자회견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율됨에 따라 이번 회담이 정상간 위안부에 대한 견해차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남중국해 문제는 최근 이 지역을 둘러싼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일 모두 영유권 다툼에 얽힌 직접 당사자가 아닌 만큼 남중국해 문제가 회담의 정식의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아베 총리가 미중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략적 중립'을 지키는 우리 정부를 겨냥해 예민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일본 정부는 또 정상회담 등 각종 국제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이미 적극적으로 미국 측을 옹호해 온 일본에게 곤란한 질문을 받는다면, 미일 신(新)밀월관계 강화와 한중 정상회담 이후 단독해진 한중관계로 생긴 한미일 3각동맹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내 활동 가능 범위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도 이번 회담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 참석차 방한 중이었던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는 사실상 자위대의 북한 진입 시 한국 정부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한일 정상회담 재개의 명분 중 하나인 양국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서라도 이 문제가 양국 정상 차원에서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일본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일 3각 안보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한일간 안보 강화 흐름에 역행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라 이르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greenaomi@news1.kr

## [한일정상회담] 개최 제안이 발표까지도 한일 엇박자

회담 후 위안부 해법 없다면 비난 피하기 어려워...조짐은 불길

아베, 남중국해 돌발발언 땀 곤란, 자위대 활동범위 조율도 쉽지 않아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우리 측 개최시점 제의 발표에 이어 정상회담 공식 발표까지도 양국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양국 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28일 오후 4시 동시에 다음달 2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발표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날 오전 일본 NHK방송이 이 소식을 앞서 전한 것.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놓고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 첫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일본 NHK를 통해서 처음 접해야 하나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양국 정부 합의 사항을 사전에 언론에 흘린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청와대 관계자가 "최근 우리 측은 개최일자를 오는 11월2일로 일본 측에 제의했으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자, 다음날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그런 보도를 한 것을 모른다"는 다소 황당한 반응을 내놨다.

이에 외교가를 중심으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싸고 아베 총리의 위안부 관련 언급 여부를 두고 양국이 팽팽히 맞서며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조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아베 총리로부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받아낼지에 여론의 촉각이 모인다.

이와 관련,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구체적인 성과 없이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만을 확인하는 회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외교가 일각에서 나온다.

birakoca@news1.kr



#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 (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모용현**  
교정 전문의

#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회복, 탄력, 밝은 오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의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화장품  
컨설팅/교육/도매  
**홍은희**

# '포스코 사유화' 이상득, 이권개입으로 측근 26억 '꿀깍'

검찰, 고령·건강상태 고려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포스코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 이후 2년만에 다시 법정에서 서게 됐다. 이 전의원은 자신의 측근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도록 사실상 '포스코를 사유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9일 이 전의원을 제3차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감생활을 한 뒤 2013년 9월 만기출소했던 이 전의원은 2년여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의원은 자신의 측근이 티엠테크 등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을 운영하며 포스코로부터 약 26억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의원은 2009년 12월 포항지역사무소장 박모(57)씨가 포스코 외주사인 티엠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씨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

거에서 조직 관리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말 이 전의원이 정치 은퇴를 선언할 때까지 24년간 지역구를 관리했으며 과거 지자체장 선거에서 뇌물 수수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전의원을 대신해 구속처벌을 받는 등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의원이 박씨에게 '보은' 차원에서 티엠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힘을 써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이 취임한 뒤 2009년 12월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으며 올 7월까지 티엠테크로부터 급여와 배당금 명목으로 약 12억원을 지급받았다.

이 전의원은 2010년 7월 포항지역 종교단체 회장이었던 채모씨가 자재 운송 전문업체 N사를 설립해 포항제철소 창고관리 용역을 수주하도록 도와 준 것으로 나타났다.

N사 대표 채씨는 포항 불교신도단체연합회장을 지내며 2012년 대선 때는 새누리당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포항지역 대외협력위원장까지 맡았다.

채씨는 N사 설립 후 6억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의원은 경제적으로 힘든 고종사촌 A씨도 N사 지분을 인수해 해 3억원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 이 전의원은 과거 자신과 코오롱 그룹에서 함께 근무했던 지인 B씨가 집진설비 측정업체인 W사를 설립해 포스코로부터 계측관련 용역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09년 12월부터 올 9월까지 5억원의 급여와 배당금을 지급 받았다.

검찰은 이 전의원이 포스코를 사실상 사유화하며 이같은 전횡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이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과 그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회장은 2009년 8월 자신이 포항제철소의 본부장이던 당시 입안·추진해 1조원 이상 투입된 신제강공장 증축공사에 군 공항 관련 고도제한을 위반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현역 국회의원이자 대통령의 형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했던 이 전의원에 대해 해결을 부탁했다.

정 전회장의 부탁을 받은 이 전의원은 국방부 등에 포스코 입장을 전달하면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줬고 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좌),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우)

대가로 포스코에 3개 기획법인을 통해 측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부탁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2009년 3월 포스코 회장에 선임된 뒤 '보은' 차원에서 이 전의원의 측근 업체에 일감이 돌아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실제 정치인이 포스코측에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특혜 제공을 먼저 요구한 권력형 비리"라며 "이 전의원이 직접 이익

을 취득하는 대신 측근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게 한 신종 뇌물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의원이 올 2월 N사와 W사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600만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출마 선언 이후 현재 일반인 신분인 이 전의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로 의율(擬律)할 수 있는 법적 구성요건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유우성 무죄 · 국정원 직원 유죄

대법원, 두 사건 모두 원심 확정... "항소심 판단에 잘못 없다" 합선센터 조사 불법성도 지적... 증거조작 '윗선'은 실형 면해

(서울=뉴스1) 김수원 기자 = 지난해 초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사상 초유의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태가 29일 모두 일단락됐다.

이날 대법원은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다만 수사 윗선인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권모(51·4급) 과장과 이모(55·3급) 처장에 대해서는 실형 대신 선고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국정원의 '조작증거' 때문에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유우성(35)씨 역시 이날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추방 절차를 밟을 것을 예고하면서 또다른 불씨의 여지를 남겼다.

◇유우성씨, 간첩 기소에서 '무죄' 확정까지

이 사건은 2013년 1월 "북한이탈주민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북한 국가안정보위부 지령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과 동향 등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같은해 2월 곧바로 유씨를 기소했고 유씨는 1심 재판 내내 "간첩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또 1심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씨 여동생을 불법으로 감금해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유씨가 받은 혐의 중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유씨의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중국국적을 은폐하고 자신의 신분을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가장해 8500여만원의 불법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것은 항소심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중인 지난해 2월이다.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다시 입증하기 위해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씨 출입경기록과 발급사실 확인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 문건 3건을 추가로 제

출했다. 그런데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이 문건 3건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보냈고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결국 유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증거들을 검찰 측이 철회하면서 간첩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거의 남지 않은 것이다.

또 유력한 증거였던 유씨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계속된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며 역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유죄 확정... 김 과장·협조지만 '실형'

이날 대법원은 유씨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49) 과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반면 '수사 윗선'인 권 과장, 이 처장에 대해서는 실형 대신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또 증거조작에 가담한 이인철(49) 주선양(瀋陽)총영사관 영사 등에 대해서도 역시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김 과장은 증거조작 의혹이 터지고 1달 뒤인 지난해 3월 31일 조선족 협조자 김모(62)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썬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일사적답복)', 범죄신고서의 일종인 '거보자료'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4월14일에는 이 처장과 이 영사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며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했던 권 과장 역시 기소를 피하지는 못했다.

다. 검찰은 자살기도 후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시한부 기소중지했던 권 과장을 같은해 7월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 이 처장에게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했다. 권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처장, 김 과장, 조선족 협조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하면서도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권 과장 등에 대해서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지 형사 증거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선고를 유예했다. abilitykl@news1.kr



# 서울설렁탕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가까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진,  
특별, 보양, 특출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5.8888  
SeoulFoodBaker\_bar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퍼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탁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분/여자컷 30분/피마 70분 부터  
디자깅 130분 부터/개머핀 헤어 220분 부터 시작합니다.

광복 연구원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은 오븐 스타일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배경은**  
Kalin Bae  
617-981-1542  
kbae@HammondRE.com



**주윤희**  
Ilmi Joo  
508-641-8924  
ujoo@HammondRE.com



LEXINGTON  
...\$ 2,999,900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간 \$2billion 이상 매출을 올리는 부동산!  
보스톤 글로브지가 선정한 'Top Place to Work'에 뽑힌 유일한 부동산!  
38년 전통의 보스톤을 대표하는 Hammond 부동산!  
18개의 지점과 400명이 넘는 에이전트가 여러분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한인사회와 함께 걸어온 길,  
보스톤코리아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 10th Anniversary

축하합니다

한인사회와 함께 걸어온 길,  
보스톤코리아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뉴햄프셔 한인회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두안 다블뤼 한인성당은  
새롭고 사순 위한 교리반이  
개설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안내

주일미사:  
10:00 am (영어)  
11:30 am, 4:30 pm (한국어)

평일미사:  
화요일 10:30 am (한국어)  
목요일 7:30 pm (한국어)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55  
office.keeb@gmail.com  
www.stdavefuye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EN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hird Common Church)

Grace Bible: 수요일 저녁 7:30 | 주일예배: 오후 10:00 | 금오 기도회: 저녁 7:10

성경공부반: "다블뤼 갈라디안서"와 "다블뤼 디모데" (골로 3:16)

담당목사: 우시창  
교회: (781) 713-0571 | 팩스: (781) 643-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BOSTON REALTY GROUP  
www.ganain.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명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PRESBYTERIAN CHURCH

담당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AJ.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겨레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평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회 예배	각 구회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Pl, Lynn, MA 01904 Tel: (978) 985-0285, (978) 949-3404  
www.boston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공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골프 레슨**

**USGTF** 최성조 프로  
USA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Master Golf Professional  
Certified Course Examiner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공인 코스 심사위원  
sj.usgtf@gmail.com

**857.600.6755**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해 알게 하였던 말씀 배우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 새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열린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공생, 부활에 열광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배를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말학교, 찬양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양예배 주일오후 12:30  
속죄예배 수-주일 속죄일  
위로예배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97  
www.growwithus.org

**"보스턴에는  
보스턴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턴 코리아는  
보스턴 언론으로서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바를 깊은  
길도록 여러분에서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도 보스턴 한인  
매사를 긍정하게 기록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info@bostonkorea.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새로운 이름,  
같은

ké  
coração  
**마음.**  
corazón  
heart

Tufts Health Plan - Network Health  
가이제 간단하게 **Tufts Health Plan** 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고객에 대한 약속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tuftshealthplan.com](http://tuftshealthplan.com).





# 크라우저 앤서 로펌

##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http://www.suhlawyer.com)

##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mailto:info@stevesuh.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력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629,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416 sf.  
New HVAC system 2015  
New Roof 2007,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62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436 sf.  
새집보다 좋은 집  
편리한 교통,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399,000  
Sharon, MA  
4 Beds, 2 Baths, 1410sf.  
플레이룸, 오피스가 있음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경한 주거환경, 좋은 학군  
제니스리 978-806-0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to live  
GinaChoi 978-866-3248



\$325,000  
Fram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19,000  
Tempsbury, MA  
4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69,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Jung 617-780-1675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560,000  
Boston, MA  
1 Bed, 1 Bath, 709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 baths, 1740sf.  
Shell Yu 781-526-2416

Condo-Townhouse  
\$273,900  
Malden, MA  
2 Beds, 1.5baths, 1930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500  
Boston, MA  
1 Bed, 1 bath, 709sf.  
JayLee 781-654-5281

Restaurant  
\$225,000  
Boston, MA  
5년된 샌드위치 스토어  
Jay Lee 781-654-5281

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 매우 높음  
SueRong Tsi 617-792-8842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0023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다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Sara You  
617-899-3566

<b>Restaurant</b>  \$350,000 <b>Cambridge, MA</b>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sq. Capacity of 120 people AnnaJung 617-780-1675	<b>Restaurant</b>  \$225,000 <b>Boston, MA</b> 5년된 큰 샌드위치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Lee 781-654-5281	<b>Full Plant Cleaner</b>  \$180,000 <b>Salem, MA</b>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82-8615	<b>Restaurant</b>  \$499,900 <b>Brookline, MA</b>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sq. 180 인석 AnnaJung 617-780-1675
<b>Business Consulting</b>  <b>레스토랑 셋업 컨설팅</b> SJ Park 617-304-7001	<b>Commercial</b>  <b>커머셜 건물 투자</b> SJ Park 617-304-7001	<b>비즈니스 빈자리</b>  <b>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b> SJ Park 617-304-7001	<b>병원 건물</b>  \$860,000 <b>Worcester, MA</b> 6552 sq., 38대 주차공간 Unnas Memorial 병원 옆 AnnaJung 617-780-1675
<b>Coin Laundry</b>  \$55,000 <b>Brookline, MA</b>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99,900 <b>Newton, MA</b>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Jung 617-780-1675	<b>Full Plant Drycleaner</b>  \$19,000 <b>Norwood, MA</b>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Jung 617-780-1675	<b>Full Plant Drycleaner</b>  \$475,000 <b>Quincy, MA</b> 10개 질의 새 장비 매장 넓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 401-935-3397
<b>Investment</b> <b>E-2 &amp; EB-5 투자</b> 문의 781-259-4989	<b>Restaurant</b> \$290,000 <b>Somerville, MA</b> Famous Restaurant, As-is SJ Park 617-304-7001	<b>Restaurant</b> \$440,000 <b>Boston, MA</b> Well-Established, As-is SJ Park 617-304-7001	<b>Restaurant</b> \$915,000 <b>Providence, RI</b> Famous Restaurant w/ Liquor 이현주 401-935-3397
<b>Restaurant</b> \$490,000 <b>Boston, MA</b> 발전가능성이 많은 비즈니스 SJ Park 617-304-7001	<b>Full Plant Cleaner</b> \$260,000 <b>Chelmsford, MA</b> Chelmsford Downtown Anna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98,000 <b>Cambridge, MA</b>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Jung 617-780-1675	<b>APT Rental</b>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값수령을 원하는 조건에 맞춰 임대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버스!** OPPS 54125번  
WWW.OPPSUSA.COM

서비스: 다양한 메뉴,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가격, 최고의 품질, 최고의 고객 서비스

서비스: 다양한 메뉴,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가격, 최고의 품질, 최고의 고객 서비스

서비스: 다양한 메뉴,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가격, 최고의 품질, 최고의 고객 서비스

617-202-3808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 43 October 30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손님주문이 끊이지 않는 아시아 퓨전 레스토랑

## 다미 (Dah Mee)

업소탐방 310

다미

25 Washington St, Natick, MA 01760  
(508) 655-3951  
www.dahmee.com

Welcome, **다미** 한국 방송 3시 케이블 TV 푸짐한 서빙

언하는 한국 방송 언하는 시간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한다

티보 플레이오프의 특별한 장점

회원을 비교해 보세요  
10 TV의 24시간 시청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서비스  
50% 할인도 받고 24시간 시청 무한대로

방송3시와 케이블 함께 계약  
월 39.99

40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6.643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네트에 자그마치 15년이나 된 한인 식당이 있다는 것은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에게 놀랄만한 뉴스다.

네트 워싱턴 스트리트에 위치한 레스토랑 '다미'는 한식을 포함해 일식과 타이 음식을 제공하는 아시아 퓨전 레스토랑이다. '다미'는 네트, 웨슬리, 프래밍햄, 서드버리를 포함한 매사추세츠 서부 지역의 유일한 한인 레스토랑이기도 하다.

'다미'의 이순영 대표는 누구 못지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자부심은 지금까지 정직하고 열정적으로 식당을 운영해 온 땀땀함에서 우리나라는 단단한 것이다.

이 대표가 네트에 '다미'를 시작한 이유는 정말로 순수했다. 이 대표는 본인이 거주하는 도버에서 가까운 네트 플라자에 자리가 생겨 식당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2000년 7월 19일에 '다미'를 처음 개업했다. 원래 '다미'는 현재 공간의 절반 정도의 규모였지만 개업 3달만에 손님이 줄을 설 만큼 많아져 나머지 공간을 구매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다미'의 손님들은 개업했을 때부터 15년동안 꾸준히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으며, 이 대표는 찾아오

는 손님의 이름과 메뉴들을 외우다시피 알고 있다. 이 대표의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는 열정 그 자체다.

이 대표는 "거의 매일 보는 손님들이 마치 가족들과 같다"고 말했다. 손님들 역시 '다미'를 주인이 항상 있는 집이라고 부른다. '다미'를 찾아오는 손님은 유대인, 인도인, 중국인 등 다양하지만 아쉽게도 한인들은 거의 보기 힘들다.

인근 식당들의 음식 정보와 순위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디쉬팁(dishitip.com)'에서는 동네 최고의 타이음식 '패타이(Pad Thai)' 1위 식당에 '다미'를 선정했다. '다미'의 패타이는 말 뜻 그대로 환상 그 자체이다.

이 외에도 '다미'에서는 다양한 스시 롤은 물론 육돌비빔밥, 육개장, 떡 만두국, 탕수육 등 한국 음식들도 접할 수 있다. '다미'의 김치와 소스는 모두 이 대표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다. 아이들을 위한 키즈 메뉴도 따로 있어 주문이 가능하다.

특히 이 식당의 파인애플 볶음밥, 망고 볶음밥, 바실 볶음밥은 테이크 아웃 주문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인기를 과시한다.

이 대표의 아들들은 어렸을 적부터 '다미'에서 일

을 하였고 현재는 뉴욕타임즈에도 보도된 샌프란시스코의 레스토랑 '나뭇가지'를 운영하는 데니스 리, 다니엘 리, 데이비 리 이다.

이 대표는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열심히 살았다.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다. 훗날에는 사회에 기여를 하며 살고 싶다"고 전했다.

'다미'의 점심 영업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3시까지이며 저녁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이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10까지 영업을 한다.

jham@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에 1PM, 달남목사 유영일

bgabc.org

40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6.6434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협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화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인협회(메인)	207-878-5652
625창조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약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곡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02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207-223-1690
무지개교회	61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턴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곡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2362
에이이 베델교회	978-274-335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턴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턴정관장 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유식주문	617-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커파티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파티어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5372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의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야힐링리치아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이스덴탈그룹	781-391-5606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 보석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베드포드지역 세탁소에서  
딜리버리맨 구합니다.  
S. 781-275-7600, C. 781-801-6896

네슈아에 있는 식당에서 주말(금.토.일)  
파트타임 일하실 분 구함.  
T. 617-851-1648

세탁소에서 홈 딜리버리(웨스턴지역)  
드라이버와 테일러 (영어가능) 구함.  
T. 603-401-0113

월-수, 니드햄지역 아이들(8살, 10살)  
라이드와 집안일(식사와 빨래) 하실분.  
T. 781-367-9687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수선/드랍스토어 매매. 조용하고 좋은  
위치. 현재 성업중. 연매상 \$100,000  
기술전수 가능. T. 781-697-1726

**N [노래방구인]**  
버지니아지역  
가족같이 일하실분  
숙소제공(깨끗한 숙소)  
T. 703-937-7798

**N [구인]**  
워너로빈스 초이스 마켓 메이커 지역  
한식주방장 및 헬퍼구함.  
숙식제공 합니다.  
T. 478-293-2311

**JANE'S SALAD & BUFFET**

**SERVING  
SUSHI, SALAD & ASIAN FOOD**

781-698-5227, 617-204-1053

274 FRANKLIN ST.  
BOSTON, MA 02110



**위치좋은 세탁소 매매**



**NATICK 다운타운에 위치한  
세탁소(수선 포함) 매매합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

**매매가격: \$63,000.00**

Call: Renee Chakalos (Century 21)  
**617-256-5502**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esl.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 private, non-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 It is not affiliated with any religious organization. The school is not a government agency. The school is not a government agency. The school is not a government agency. The school is not a government agency.

## '그놈이다', 주원의 이유 있는 자신감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최근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배우 주원은 그간의 영화 흥행 성적 부진 이유로 '안타까운 대진운'을 꼽았다. 하지만 오는 28일 개봉을 앞둔 '그놈이다' 역시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22일, 손현주 주연의 '더 폰'이 먼저 개봉하며 11월 5일엔 강동원·김윤석의 '검은 사제들'이 관객을 만날 채비를 마쳤다.

주원은 "그래도 자신있다"는 말로 걱정어린 시선을 거둬들였다. 그리고 꽤기 넘치게 도전장을 내민 차기작 '그놈이다'는 20일 오후 언론사 사회를 통해 베일을 벗었다.

'그놈이다'는 여동생을 잃은 남자가 죽음을 예견하는 소녀의 도움으로 범인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실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져 더욱 간절함이 배가된다.

과거 부산의 해변마을에서는 번사체로 떠오른 한 여대생을 기리는 천도제가 벌어졌고, 낯선 지기국이 진행될 때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 붉은 천이 끊어지고 낯그릇이 뚱뚱 떠와 한 청년 앞에 멈춘 것. 여대생의 아버지는 이 청년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6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하지만 결국 범인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윤준형 감독은 여기에서 착안해 시나리오 작업에 착수했고,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하며 더욱 풍성한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영화에서도 천도제 장면은 등장하는데, 실제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게 그려졌다. 제작진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장면이다. 실제 무당을 섭외해 현장에서 자문을 구했고 그가 악사로 연주까지 맡으며 리얼리티를 부여했다.

영화는 미스터리 추적극이지만, 공포영화 못지않은 긴장감을 조성한다. 특히 시은이 환영을 보는 장면에서는 흔들리고 조각난 편집 화면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다.

'그놈이다'가 몰입도를 더욱 끌어올린 데엔 배경이 주는 묘한 분위기도 빼놓을 수 없다. 마



을 앞엔 포구가 펼쳐져 있지만, 건물엔 포구와 어울리지 않는 철물점 등이 자리해있고 옆쪽엔 찻집과 횡집이 한데 모여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 이질적 느낌을 주는 이 장소는 힘겹게 범인을 쫓는 주인공 장우를 더욱 외롭게 보이게 한다.

스릴감 넘치는 영화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배우들이다. 여동생을 죽인 범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원(장우 역)은 깊이 있는 감정 묘사와 가슴을 저릿하게 만드는 눈물 연기, 피로되하게 변신한 모습은 물론 몸을 내던진 액션 연기까지 모두 소화해냈다. 특유의 뚫어오르는 에너지가 이번 작품에서도 물론 느껴진다.

이유영은 장우를 돕는 '귀신 보는 소녀' 시은으로, 유해진은 큰 트라우마를 지닌 정체불명의 남성으로 분했다. 두 사람 모두 캐릭터에 완벽하게 빠져든 모습으로 손에 땀을 쥐는 긴박감을 조성한다. 섬세한 표현력이 빛난 미스터리 추적극.

uu84@news1.kr

## 아이유 '스물셋' 차트 올킬 '음원퀀 귀환'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아티스트 아이유가 돌아왔다.

아이유는 23일 0시 네 번째 미니앨범이자 첫 프로듀싱 앨범 '챗셔(CHAT-SHIRE)'를 공개했다.

음원 공개 직후 타이틀곡 '스물셋'이 멜론, 지니, 벅스, 네이버뮤직, 엠넷닷컴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음원차트 8곳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앨범 수록곡 전곡의 줄세우기를 기록하며 '음원퀀'의 저력을 입증했다.

베일을 벗은 새 앨범 '챗셔(CHAT-SHIRE)'는 음원차트 올킬은 물론 각 커뮤니티, SNS 및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며 아이유 파워를 실감케 했다.

타이틀곡 '스물셋'은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체셔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곡으로, 펑키한 비트와 디스코적인 사운드가 가볍고 재미있으면서도 정신 없는 가사와 어우러져 어딘가 약 오르는 곡이다. 특히 '스물셋'의 가사는 아이유의 솔직하고 도발적인 표현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과 열광을 불러일으키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티저영상을 공개돼 큰 관심을 받았던 수록곡 '새 신발', 'Zeze(제제)', '푸르던',

자이언티의 깜짝 피쳐링 공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RED QUEEN(레드퀸)', 팬들을 위해 깜짝 공개해 큰 사랑을 받았던 '무릎', '안경' 등 전곡이 타이틀곡 못지 않는 큰 사랑을 받으며 한 단계 성장한 아티스트로서 인정을 받았다.

또한 앨범과 함께 공개된 '스물셋' 뮤직비디오는 이효리, 원더걸스, 씨스타, 박효신 등 국내 톱가수들과 작업했던 룸펜스가 연출을 맡아 특유의 독특한 영상미와 다양한 아트 요소들을 통해 아이유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했다.

'스물셋'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담은 가사에 맞춰 갈팡질팡하는 아이유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영상 곳곳에 모티브가 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캐릭터 요소를 숨겨놓아 보는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보는 재미를 더했다.

한편 아이유는 오는 11월21일과 22일 양일간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되는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전국투어 콘서트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reddgreen35@news1.kr



## 전지현, "한류 확산에 도움 되는 배우 될 것"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전지현이 대통령표창을 받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전지현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날 전지현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큰 상을 벌써 받아도 될지 영광스럽다.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한류 확산에 도움이

되는 배우가 되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그들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식으로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부장관표창, 한국콘텐츠진흥원장표창 등 5개 부문에서 29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star@news1.kr



## 무술인 vs 런닝맨, 사상초유 100대 100 레이스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런닝맨'이 100대 100 대결을 벌인다.

29일 SBS '런닝맨'에서 공개한 촬영장 비하인드 사진 '런닝맨 워밍업'에는 즉석 섭외된 게스트들을 위해 직접 커피를 사다 나르는 이광수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날 '런닝맨'에는 정두홍, 노지심, 이원희, 태미 등 방송무술, 프로레슬링, 유도, 태권도에 종사하는 무술인 100명과 100명의 런닝맨, 지인들이 대결을 펼치는 100대 100 레이스가 펼쳐졌다.

런닝맨 멤버 7명은 제작진의 미션에 따라 레이

스를 함께 할 게스트 93명의 즉석 섭외를 시도했다. 멤버들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지인들을 초대했고 멤버들의 초대에 많은 게스트들이 기꺼이 달려와줬다. 이광수는 자신을 위해 방문해준 게스트들을 위해 고마움의 표시로 따뜻한 커피를 직접 사서 배달했다.

아울러 사진 속에는 즉석 초대를 받고 현장에 달려온 유이가 사상초유 '런닝맨' 촬영 현장을 목격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ppbn@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5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28.5%
2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6.3%
3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22.3%
4	MBC	수목미니시리즈(그녀는예뻐다)	17.5%
5	KBS1	KBS9시뉴스	16.4%
6	MBC	주말드라마(엄마)	15.3%
7	SBS	일일드라마(돌아온황금복)	14.8%
8	SBS	창사특별기획(육룡이나르샤)	14.5%
9	MBC	무한도전	14.0%
10	KBS2	해피선데이	13.2%

##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일일연속극(위대한조강지처)
2	SBS	일일드라마(돌아온황금복)
3	KBS2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4	MBC	수목미니시리즈(그녀는예뻐다)
5	SBS	창사특별기획(육룡이나르샤)
6	MBC	아침드라마(이브의 사랑)
7	KBS2	특별기획드라마(장사의신객주2015)
8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9	SBS	주말특별기획(애인있어요)
10	SBS	아침연속극(어머님은내며느리)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I (Feat. 버벌진트)	태연(Taeyeon)
02	또 다시 사랑	임창정
03	No Make Up	Zion.T
04	스물셋	아이유
05	말해 Yes Or No	지코 (ZICO)
06	푸르던	아이유
07	바람이나 좀 쐬 (Feat. MIWOO)	개리
08	어깨	소유, 권정열
09	취향저격	iKON
10	새 신발	아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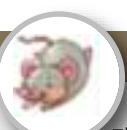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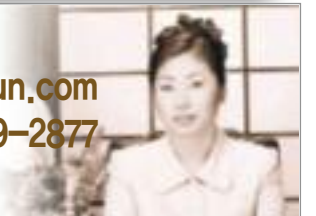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5	2	4	8		6		
		3					1	
								4
3	9			2				5
2			5		4			3
7				6			4	8
1								
	2					3		
		6		7	9	8	2	

11월 1일 - 11월 7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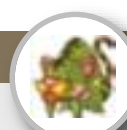
### 쥐띠 | 눈과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 운수: 눈과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사업가는 큰 계약이 성사됩니다. 금전운이 상승하는 때이니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 애정: 다른 시선으로 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나쁜게만 보던 속에서도 좋은 면을 찾게 될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4, 7일 길일. 2, 5일 주의.



### 소띠 |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처럼

● 운수: 모든 것이 순조로우니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방심하지 말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 금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처럼 됩니다. 힘들어도 견디면 결국은 상황이 좋게 바뀌고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왠지 모르게 끌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처럼 집안으로 온풍이 불어오니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 5일 길일. 3, 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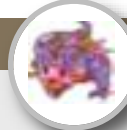
### 범띠 | 그때그때 빨리 풀어야

● 운수: 힘들 때일수록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금전: 친한 사람과 돈거래를 하지 마세요. 돈거래로 인한 손해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 애정: 그때그때 빨리 풀어야 합니다. 작은 불만이 쌓이다보면 나중에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 6일 길일. 1, 4일 주의.



### 토끼띠 | 절약 정신이 필요한

● 운수: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니 잠시 미뤄주세요. ● 금전: 절약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딱히 필요도 없는 것을 사게 되거나 평상시에 안 사던 것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크든 작든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3, 7일 길일. 2, 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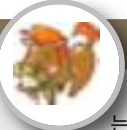
### 용띠 | 보상이 따라주는

● 운수: 나무꾼이 금도끼를 안겨주는 산신령을 만나게 되는 것 같은 운세입니다. 귀인을 만나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 금전: 맘 흘려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따라주는 때입니다.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 애정: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내 편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 4일 길일. 6, 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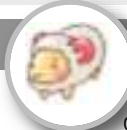
### 뱀띠 | 좋은 해결책이 떠오르는

● 운수: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해결책이 떠오를 것입니다. ● 금전: 여러모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적인 일에서나 사적인 일에서 이익이 따라줄 것입니다. ● 애정: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평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 5일 길일. 4, 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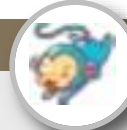
### 말띠 | 자식의 성장을 인정해주고

● 운수: 언제까지나 품안의 자식일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식의 성장을 인정해주고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두어야 합니다. ● 금전: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크게 마음 쓰지 마세요. 어차피 다 지나고 보면 일장춘몽입니다. ● 애정: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 6일 길일. 2, 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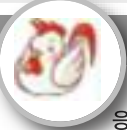
### 양띠 | 새로운 희망을

● 운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현실이 힘들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 금전: 에너지 없는 정사는 없다지만 적당히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깎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 애정: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상대의 본성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이니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 7일 길일. 3, 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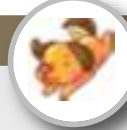
### 원숭이띠 | 스스로 잘 행거야

● 운수: 중요한 일과 관련하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고 마무리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조심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믿어주는 것도 좋지만 믿거니 하고 다 맡기지 말고 스스로 잘 행거야 합니다. ● 애정: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괜한 오해를 해서 상대를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4, 5일 길일. 1, 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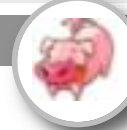
### 닭띠 | 전화위복의 기회를

● 운수: 위기라고 생각할만한 상황이 오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면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 금전: 무조건 아끼는 것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이 이득과 연결될 것입니다. ● 애정: 한 필의 비단을 짜는데 꼭 있어야 하는 씨줄과 날줄의 관계와 같습니다. 때려야 떼기가 어려울 정도로 더 끈이 강해집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 4일 길일. 2, 6일 주의.



### 개띠 | 상황이 유리하게 바뀔

● 운수: 빨리 결정하면 할수록 상황이 유리하게 바뀔 것입니다. 망설이다가는 모처럼 온 기회가 그냥 지나갑니다. ● 금전: 크게 남는 것은 없지만 고객 만족도는 높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는 얻은 것이 있겠습니다. ● 애정: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이해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 4일 길일. 3, 6일 주의.



### 돼지띠 |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야

● 운수: 어떤 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일에서 큰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금전: 나가는 것에 비해서 들어오는 적었습니다. 재물이 빠져나가는 운세이니 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함께 한 것이 별로 없다는 후회를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3, 5일 길일. 1, 4일 주의.



## 신승훈 9년만의 정규 앨범, "11집은 음악인생 시즌2"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가수 신승훈이 이번 앨범에 대중이 원하는 음악을 담았다고 밝혔다.

신승훈은 2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 청담 씨네시티 M큐브에서 열린 정규 11집 발매 기념 음악감상회에서 "앞으로 20년 정도 음악 계속 할 건데 어떤 음악을 할 것인지 말로만, 상상만 하는 건 위험하다 생각해 3장의 미니앨범을 내고 부딪혀 봤다"고 앞선 미니앨범에 대해 말했다.

신승훈은 9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 그 동안 3장의 미니앨범을 발표했고, 발라드 황제 이미지의

신승훈 음악이 아닌 모던록, 어반뮤직, 브리티시록 등을 시도했다.

신승훈은 "이제 어울리는 음악, 안 어울리는 음악을 알 것 같다. 너무 많은 장르를 시도하다 보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시행착오도 알았다"며 "이유있는 방향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시기가 없었다면 미니앨범으로 발표한 곡 같은 노래들은 탄생되지 않았을 것 같기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신조가 하나 있다. 대중가수이기 때문에 대중에게서 떠나간다면 책무를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그 생각을 정규

앨범에 한정시켰다. 이번 11집이 빗나간 대중을 돌아오게 할 것 같다. 가수 겸 작곡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앨범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승훈은 정규 11집 '아이엠 앤 아이엠(I am...&I am)'을 Part1 '아이엠(I am...)', Part2 '앤 아이엠(&I am)' 두 번에 걸쳐 발표한다. 29일 0시에는 타이틀곡 '이게 나에요'를 비롯한 Part1 전곡을 공개한다. '이게 나에요'는 신승훈 특유의 호소력과 담백함, 절제의 미가 담긴 애절한 발라드곡이다.

ppbn@news1.kr



## 빅뱅 LA공연, 장쯔이 손가락 하트 응원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빅뱅 LA공연을 찾은 장쯔이가 관람 후 탐과 만남을 가졌다.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빅뱅 멤버 탐과 장쯔이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탐과 장쯔이는 나란히 서서 미소 지으며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장쯔이는 빅뱅과 탐의 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빅뱅의 미국 LA공연을 찾아 관람했고

콘서트 후 직접 대기실을 찾아 멤버들을 응원했다.

누리꾼들은 "빅뱅 LA공연, 장쯔이까지 관람을 하다니 대단하다", "빅뱅 LA공연 장쯔이랑 의외로 친한가보다", "빅뱅 LA공연, 장쯔이 출산했나"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빅뱅 LA공연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티켓 판매고를 기록한 공연 톱10'으로 선정됐다.

star@news1.kr

## '해투3' 김성균 "삼천포 인기? 1년 후 못 알아봐"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해피투게더3' 김성균이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삼천포로 인기를 끌었던 당시를 생각했다.

김성균은 '해피투게더3'에서 "아들이 아주머니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아빠 삼천포예요'라고 자랑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전에 영화에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보기만 했는데 삼천포 이후로는 사람들이 주위로 물려들더라"고 털어놓았다.

또 김성균은 "휴게소에서 아들과 핫도그를 사러 가는데 너무 물려오

더라. 사진 찍자고 하고 사인도 해달라고 해서 힘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성균은 "그런데 그 이후로 1년이 지나니까 아예 못알아보시더라. 그때가 좋았다"고 고백했다.

aluem\_chang@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XOOM energy** SLP Inc. Xoom Partner  
**20~30%**  
전기요금이 National Grid와 EverSource보다 싸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에너지 규제 감독관 면제 전기와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를 XOOM Energy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XOOM Energy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tailer로서 현재 미국 18개주에 있는 70유니티의 구역에서 비즈니스와 개인주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균 대표  
더 자세한 내용은 www.xoomenergy.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81.266.7245**  
한국어 상담 : 데인오 자사양 / energy@xoom-energy.com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B - GDT - LMS AP  
N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할매네 로봇' PD "로봇이 시골에 간 적은 세계적으로 드물어"

(서울=뉴스스타) 명희숙 기자 = 박종훈 PD가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밝혔다.

박종훈 PD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동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tvN 새 예능프로그램 '할매네 로봇'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농촌에 로봇을 가져가 보면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림 자체가 신선하고 tvN의 콘텐츠 정체성과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골을 왜 배경으로 했냐는 이야기를 듣는데 도시에서는 이미 로봇들이 활동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한다. 시골에서 로봇이 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로봇과 가장 먼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더니 할머니였다. 그래서 시골을 찾아가게 됐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계속 사시다 보면 힘들게 일하고 있다. 시골에서 적절하게 살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과연 로봇이 할머니들과 잘 지낸다면 어떤 재미가 나올까 생각했다. 인간들 중에서 가장 정이 많은 할머니들과 정이라고는 없는 로봇이 어떤 모습을 만들어 낼까 싶었다"고 덧붙였다.

'할매네 로봇'은 출연자들이 로봇을 가지고 시골 마을로 가서 할머니들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신개념 로봇 예능 버라이어티로 이희준, 장동민, 강남, B1A4 바호가 하이테크 로봇과 호흡을 맞춘다.

reddgreen35@news1.kr



- #### 티보플레이 10월 4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MBC  | 위대한 조강지처       |
| 2  | SBS  | 돌아온 황금복        |
| 3  | KBS2 |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
| 4  | MBC  | 그녀는 예뻐다        |
| 5  | SBS  | 육룡이 나르샤        |
| 6  | MBC  | 이브의 사랑         |
| 7  | KBS2 | 장사의 신 -객주 2015 |
| 8  | KBS  | 가족을 지켜라        |
| 9  | SBS  | 애인있어요          |
| 10 | SBS  | 어머님은 내머느리      |

- #### 티보플레이 10월 4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CJ E&M | 할매네 로봇         |
| 2 | CJ E&M |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 |

- #### 티보플레이 10월 4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영도 | 태인호/이상희 |
|---|----|---------|

###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 신승훈 100% 못 맞혀

(서울=뉴스스타) 온라인뉴스팀 =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 신승훈이 실력자 찾기에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다.

신승훈은 지난 22일 방송된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에 출연해 "거의 2년 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다"며 "9년 만에 정규 앨범 발매다. 녹화 이후 다시 녹음하러 가야한다"고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백지영, 김범수 편을 모니터 했는데 100% 못 맞히더라. 음치다 싶으면 실력자고, 실력자다 싶으면 음치다"며 실력자 찾기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star@news1.kr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The Best OnDemand,



##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 리스팅

1. Full Plant 클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알링턴 메인스트리트에 위치. 년 매상 5만-7만. Asking **\$20,000**
6. 보스톤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300,000**
7. 약세사리 카트 : 큰 몰안에 위치함. 보스톤 북부. 안정적인 수입. **\$55,000**
8.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9.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군. Rt 9 인접, 근처 Chestnut Hill 쇼핑몰과 불과 몇분거리에 위치함. **\$2,950**
10.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Unit 2. Brighton. 4 Bed 2 Bath 2,379 s.f 히팅,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20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모르면 공손히 여쭙보고 알면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오해란, 나(입장)를 이해 못 는 네(상대)가 있는 이유이다. 그렇다,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 적도 없지만, 나를 몰라주면 왠지 섭섭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특별히 어느 한인 지역보다 인구수가 적은 뉴잉글랜드 지방에서의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자유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때에 따라 급한 사정으로 일이 있어 어느 장소에까지 남편이 아닌 아내가 아닌 가깝게 지내는 지인의 라이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옆좌석에 앉아 있다가 아는 분을 만나면 여간 민망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내 경우는 그런 느낌으로 남는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다른 부분의 얘기는 잘 하지 않지만, 다른 여자의 라이드는 늘 조심하라는 부탁을 하는 편이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도 않거나 이해하려 애써주지도 않으니 그 상황을 잘 판단해 결정하라는 부탁을 아내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어쩌면, 은근히 남편을 잡아놓기 위한 낮은 목소리를 깔아놓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나 자신 역시도 남편에게 바라는 마음만큼 노력을 하는 편이다. 세

상은 자신의 얘기는 세상 밖으로 내어놓기 싫어하면서 남의 얘기를 꼬집어 애깃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속내에 감춰진 심리가 아닐까 싶다.

보통 남의 얘기가 궁금한 사람일수록 남의 얘기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다. 무엇이 그렇게 궁금한지 자신의 얘기는 뒤로 감춘 채 다른 사람의 일상이 그토록 궁금한지 모를 일이다. 얼마 전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비즈니스의 바쁜 일정과 개인 사정이 생겨 서로 연락이 끊기는 일이 있었다. 물론 나 역시 궁금했지만, 그동안 그 친구의 성격을 봐서라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싶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와 가깝게 지내던 나보다도 주변 분들이 그 친구의 일상이 더욱 궁금해 물어오는 것이다. 걱정 반 관심 반 의아심 반으로 말이다.

이런저런 삶의 경험에서 배우고 또 배운다. 그것은 그 어떤 일을 통해 지난날을 뒤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지혜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직접적인 내 일이 되었든 아니면 주변의 다른 사람의 일이 되었든 배울 것은 배워 내 것으로 만들고 버려야 할 것은 미련없이 던져버리는,

그래서 삶의 에너지로 축적하는 것이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충고나 지적까지도 받아들이는 힘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더욱 굳건한 나의 삶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은 더욱 열심히 배우고 아는 것은 제대로 깊이를 더하는 그런.

사람은 때로 각자의 '색안경'을 끼고 산다고 하지 않던가. 내가 낀 자신의 색깔의 안경으로 혹여 다른 사람에게 아픈 상처나 고통을 주지는 않는 것인지 생각해 머물러 본다. 적어도 그 사람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심히 흘러버린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의 파장을 몰고 올지를 생각이나 하며 사는 것인지. 누군가에게 남의 얘기를 한마디 던지기 전에 잠시 호흡을 멈추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뱉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특별히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더욱이.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이 아닌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일 때가 있다. 자신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한

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편안하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참을 지나 생각해 보면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얼마나 비겁하고 진실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다. 작은 일상에서 생각지 못하고 실수를 하며 살지만, 적어도 그 실수를 남에게 떠맡기지 않고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살기를 바람해 본다.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진실한 삶이길.

모르면 공손히 여쭙 보라는 얘기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잠시라도 생각해 보고 말을 하라는 것이다. 알면 차근차근 가르쳐주라는 얘기는 혹여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오해 얘기나 험담을 전해올 때는 두둔이 아닌 적어도 아는 만큼 그렇지 않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당당한 삶이면 좋겠다. 적어도 세상의 반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때쯤에 있다면 말이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상대방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작은 일상에서 절로 행복을 누릴 것이며 남은 인생을 행복으로 엮어 가게 되리란 생각이다. 그런 행복을 엮어가는 ...



한담객설閑談客說:  
보스톤에서 맥주를 마시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가을이 깊어간다. 단풍이 진한 맥주 색깔이다. 호박색 샘아담스를 훌쩍이며 몇자 글적 인다면 멋드러진 정경일 게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 그런데, 길고 어두우며 깊은 겨울 터널이 코 앞이다. 로간공항에서 빠져나오는 터널에 곧 진입할 거라는 말이다. 공항과 도심은 터널로 연결되어 있다. 모두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라.

보스톤으로 이사오려면 십여년은 더 기다려야 했다. 컨퍼런스가 있어 보스톤에 왔다. 오랜 친구들과 동업자들과 동창들을 만났다. 일행과 몰려 점심을 먹으러 갔다. 누군가 맥주를 시켰다. 나라고 빠질 수 없었다. 당당히

(?) '하이네켄' 을 주문했다. 쪼금 있는척 아느척 하고픈 욕망도 있었던 거다. 현대, 다른 일행은 모두 듣도 보도 못하던 '샘아담스' 를 주문했다. 아아, 이 괴리감. 누군가 귀뜸해다. 지방맥주를 맛본다는 거다.

촌에서 공부할 적이다. 대학촌 읍내엔 리퀴스토아가 오직 하나였다. 금요일 서너시가 되면 리퀴스토아 입구는 장사진을 이뤘다. 교수, 대학원생, 대학생, 교직원 등등. 꽤 의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학부생은 비싼 맥주, 대학원생은 세일 맥주. 교수는 상표가 꺼꾸로 붙은 싸구려 맥주를 샀다. 같은 과 교수와 조우 할 적이다. 맥주가 담긴 내 장바구니

를 흘깃 쳐다봤다. 교수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눈은 옆게 웃고 있는데, 어색한거다. 내 눈길도 역시 그 교수의 장바구니를 향했다. 내가 고른 맥주가 이삼불 비쌌다. 박노해 시인이다. 새벽 소주는 차갑다. 맥주보다 더 차가워 가슴을 찌른다. 너무 차가워 먹먹하다. 나도 전쟁같은 학교일을 한창 치를 적이었다.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가지/이러다간 끝내 못가지 (박노해, 노동의 새벽중에서)

그때도 다운타운에선 도로와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다. 공항에서 빠져나와 터널에 들

어설적에 무서움이 돌격해 왔다. 수 십년전에 지어졌다는 터널은 땅속으로 내 몸을 끌어 당겼는데, 공포감에 몸을 떨었다. 십여년 후 보스톤에 이사왔을때도 터널공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참으로 오랫동안 공사를 하더니, 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터널이 지날때 마다 공포감은 아직도 여전하다.

보스톤에 이사와서 샘아담스만 맛본건 아니다. 긴 터널같은 어두운 겨울도 맛봤다. 게다가 보스톤코리아에 몇자 줄문을 적어 보내기 시작하게 됐던 됐다. 첫 글이 내 작은 이야기였다. 그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간다. 그 세월동안 보스톤코리아도 부쩍 자랐다. 보스톤코리아 창간 10주년을 축하한다. 말석에 이름을 올린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가 썼다.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 후서 5:23)

HURAM | 성형외과  
Maximizing Your Beauty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커뮤니티,  
**보스톤 코리아** T. 617-955-9112

STAR ★ 동안  
 피부과·성형외과

## 대한민국 1등 피부과·성형외과 (구, 이화성형외과)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

안면 거상술, 리프팅, 지방 흡입술, 지방 이식술을 잘하는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외원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탈출)	안면거상술 (목포함)	상안검	하안검	얼개상거름	매몰상거름	얼굴자랑이식 (FRP포함)	포성형
<del>770만원</del>	<del>660만원</del>	<del>220만원</del>	<del>220만원</del>	<del>166만원</del>	<del>110만원</del>	<del>275만원</del>	<del>330만원</del>
550만원	660만원	132만원	132만원	121만원	88만원	165만원	264만원

부가세(10%) 포함가

-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아우르는 토탈 피부성형미용 원스탑 서비스
- 한국내 최초 항노화 전문 클리닉 개설 전문의 ● 성형수술 후 붓기케어 및 재생관리 서비스
- 모든 수술시 FDA 승인 받은 엄선된 정품 재료사용

Before  
&  
After



- 한국내 최신 레이저 장비 6대 보유
- 메디컬 카어 서비스 (호텔 내 병원 위치)
- 한국내 최초 수술보장제도

리본 뷰티메디칼그룹  
LIPOBON BEAUTY MEDICAL GROUP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100%의 예술을 만듭니다!

## 리본성형외과

- 1999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의료무사고 병원
- 최첨단 의료장비 3D 성형 시뮬레이션
- 1mm의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시술



25년 동안의  
 가장 안전한  
 병원!!!

쌍꺼풀 매울 <del>132만원</del> 99만원	쌍꺼풀+ 눈매교정 <del>330만원</del> 220만원	눈썹거상+ 하안검 <del>396만원</del> 275만원
---------------------------------------	---	---

부가세(10%) 포함가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커뮤니티,  
**보스톤 코리아**

T. 617-955-9112

HURAM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독자기고  
김철

##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7. 대평원 전쟁의 서막 (4)

40년 대평원전쟁의 서막 (계속)

보다 못한 그레틴 소위는 술병을 뺀 채 깨버렸다. 술로 제정신이 아닌 통역이 제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해줄 리가 없었다. 잘못된 통역은 서로 상대방을 불신하게 만들어 증오심만 더 키웠다. 통역인은 인디언 전사들을 여자로 부르며 인디언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심지어는 "여기 미군들이 온 이유는 인디언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디언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 식으로 얼토당토 안하는 말을 지어서 통역을 하기도 했다. 분위기가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지자 그레틴이 인디언들과의 대치를 끝내고 자신이 데리고 온 파견부대로 돌아가려는 순간에 미군 병사 한 명이 추장에게 총을 쏘았다. 이에 격분한 인디언들이 한꺼번에 미군들에게 달려들어 그레틴 소위와 통역자와 28명의 병사를 그 자리에서 모두 죽였다.

이 전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생생히 지켜보고 있는 14살의 한 오글라라 지파 인디언 소년이 있었다. 그는 크레이지호스였다. 백인과의 충돌로 인디언 추장이 사망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이 소년은 그 때부터 전사가 되어 인디언들의 생명과 땅을 지키기 위하여 백인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굳게 결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당시의 신문들은 이 사건을 그레틴 학살로 표현했다. 사건의 세세한 경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다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었겠지만 내용을 파악해 보면 학살보다는 전투로 취급하는 게 옳을 듯싶다. 라라미 조약에 따르면, 인디언이 소를 훔쳐간 케이스와 같은 일들은 라라미 요새의 군인이 개입할 성격이 전혀 아니고 연방정부에서 임명한 인디언 담당관(indian agent)이 처리하도록 돼 있었다. 플레밍 중위나 그레틴 소위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같이 보인다. 이와 같이 서부개척시대의 미국은 우리가 흔히 서부활극 영화에서 본 것처럼 질서가 있거나 정돈된 사회가 아니었던 것 같다. 방금 봤듯이 엉터리 통역으로 엄청난 불상사를 불러온다든지, 전쟁 중에 과음하여 취중전투를 하기도 하고, 전사하거나 학살당한 시체를 대상으로 온갖 몹쓸 짓을 해대기도 하고, 일부 광신적인 지도자들 중에는 신의 이름으로 인디언 박멸을 외치기도 한 기록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된다. 또한 병사들의 대부분은 유럽에서 갓 이민 와서 달리 직업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로서 이들은 제대로 된 군사교육도 받지 못하고 서부의 인디언전쟁 현장으로 투입되었다고 한다.

미국정부의 전쟁부(Department of War)는 이 사건을 인디언들이 계획적으로 꾸민 사건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응징을 추진하였다. 1855년 4월 파리에 머물고 있던 하니(William S. Harney)대령을 불러들여 네브라스카에 있는 커니 요새로 보내 인디언들을 징벌할 부대를 구성토록 하였다. 그해 8월 24일 하니는 600명의 병역을 이끌고 커니 요새를 떠나 서쪽으

로 인디언 마을을 찾아 나섰다. 떠나면서 그는 "신의 뜻에 따라 전장으로 향한다. 더 이상의 평화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9월 3일 하니 부대는 약 250명의 브룰레족이 살고 있던 네브라스카의 Blue Water Creek 캠프를 기습하여 86명을 살해했다. 이 전투를 'The Battle of Ash Hollow', 또는 'The Battle of Blue Water Creek'라고 부른다. 사망자 중에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수우 인디언들은 그 후 하니의 별명을 '백정(butcher)'이라고 지어줬다. 명백히 미군의 발포 때문에 시작된 전투에서 미군 측 인원 30명이 사망한 데에 대한 앙갚음으로 아무 관련도 없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포함하여 그 세 배에 가까운 인디언들을 죽인 일은 정당한 명분에 따른 보복 전쟁이라기보다는 학살 측면이 더 강한 것 같다. 오늘날 하니라는 이름은 라코타의 성산 블랙힐즈의 최고봉(Harney Peak)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산티 수우족에 대한 사상최대 사형집행(1862년)

이민자들이 19세기 중반부터는 미시시피 강을 건너 서부로 인디언의 땅을 침범하여 농지와 목장을 일구며 정착촌건설을 확대해 나갔다. 인디언의 활동무대는 백인들에 의하여 포위되고 백인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사슴이나 들소 같은 사냥감은 크게 줄어들어 전통적인 생활방식의 유지가 힘들어지고 있었다. 1851년

연방정부는 미네소타 삼림지역에 살던 산티 수우(Santee Sioux) 족과 두 개의 조약(Treaty of Traverse on July 23, 1851 and Treaty of Mendota on August 5, 1851)을 맺고 거의 남한 면적에 육박하는 비옥한 땅을 가로챘다. 조약에 따라 산티 수우족이 미네소타 강 유역의 작은 보호구역으로 쫓겨 가는 대가로 미국 정부로부터 연금과 생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남북전쟁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연방정부는 연금과 생필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겼다. 그러지 않아도 백인 이민자들이 인디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동안 불만이 쌓여 오고 있었는데 연금지급 지연으로 갈등 수준이 급격히 높아져 급기야는 양측 간의 전면적인 전쟁에까지 이르렀다. 연금과 기타의 보급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지급 시기의 지연 말고도 부패한 연방정부 주재관과 사기를 일삼는 상인들로 인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1862년 8월 15일 인디언들이 외상으로라도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에서 파견된 주재관과 인디언과의 거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인들을 만났을 때 상인중 한 명인 Andrew Jackson Myrick은 "배가 고프면 풀이나 뜯어먹고 자기 똥이나 먹으라고 해"라고 심하게 모욕하였다. 실제로 뒤에 일어난 전쟁 중에 인디언의 손에 살해된 그의 입에는 풀이 가득 채워졌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04 김대문의 '화랑세기花郎世紀' (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들이, 무당이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받들므로 이를 두려워 공경하다 보니, 높으신 분을 자충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간혹 부르는 니사금尼師今은 닛금齒理를 일컫는 말이다. 처음에 남해왕이 죽고 아들 노례왕이 탈해왕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주자, 탈해가 '내가 듣기에 성인과 지혜로운 이들은 이가 많다'하고, 시험 삼아 떡을 물어 보았다. 예로부터 전하는 말이 이렇다.…… 어떤 이는 마립간麻立干이라고도 한다. 김대문은 '마립간이라는 것은 이 지방 말로 말뚝을 이른다. 말뚝을 표지로 자리에 세워두면 왕이니, 말뚝은 주인이 되고 신하는 아래에서 말뚝을 따라 줄을 지었다. 이런 까닭에 붙인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왕의 호칭인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에 대한 김대문의 뜻풀이는 오늘날 학계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그의 이런 자세한 뜻풀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왕의 호칭인지 아니면 왜 왕을 그렇게 불렀는지 막연한 생각과 학계에서는 여러 이론異論이 있으리라... 위의 기록이 김대문의 어느 책에서 인용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귀중한 사료의 해석이다.

또 다른 중요한 기록이 화랑에 관한 기록이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충성스러운 신하와 용감한 장수들의 본보기가 되는

화랑들을 많이 남겨 놓았다. 삼국사기 50권 중 마지막 10권(41 ~ 50권)이 열전인데, 그 중에서 김유신의 열전이 3권이나 차지한다. '화랑세기' 필사본이 금세기에 돌출하면서 새로이 밝혀진 내용이 김유신이 화랑들의 수장인 풍월주(15세)를 지냈음이 확인되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 편찬 당시에 김대문의 미사여구 몇 줄만 인용하였다. 그래서 후세들에게 모든 화랑은 더 없이 충성스럽고 훌륭한 장수로만 각인되어 있다. 즉 김부식이 전하고 싶어했던 화랑의 '격의의 틀' 속에 후세들의 사고思考는 갇히고 말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37년 조에 보면, "김대문은 '화랑세기'에서 말하기를,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로부터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맹한 병사가 여기에서 생겨났다'고 하였다"라는 대목이다. 김부식은 유교 사상에 입각하여 많은 신하들의 충성심을 집결하려는 의도에서인지 몰라도 그 구절을 대단히 좋아했음이 분명하다. 그는 같은 구절을 열전 '김흠운' 150 전에 가서도 한 번 더 인용하고 있다.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진흥왕 37년 조에 인용된 구절은 화랑세기(필사본) 서문序文에서 인용되었다. 이 역시 '필사본'이 나오지 않았다면 '화랑세기' 어느 부분에서 인용되어 있

는지 알 수 없었던 일이다. (원문, 於是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 어시현좌충신 종차이수 양장용졸 유시이생)

화랑세기 필사본을 위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위의 '미사여구' 한 구절만 인용된 것을 보고 전체 화랑세기가 '현좌충신과 양장용졸'로만 가득차 있는 줄 알았는데, 현대인의, 아니면 조선시대 성리학의 이념에 반하는 성적인 묘사들이 많은 관계로 아마도 받아드리기가 불편한 것으로 보인다.

150) 김흠운金歆運(? ~ 655년, 金歆運으로도 기록한다)은 신라의 군인이었다. 내물왕의 8대손으로, 태종무열왕의 사위이며, 신문왕의 장이다. 아버지는 잡찬 김달복이다. 어려서는 화랑 문노文努(8세 풍월주)의 낭도로 지냈다. 655년 백제와의 전투에서 조천성助川城(현재의 충청북도 영동군의 비봉산성)을 공격하다가 전사하였다(삼국사기).

한편 화랑세기(필사본)에서는 그의 출생에 관하여 자세한 기록이 있다. 신문왕 때의 반역자인 김흠운金歆突의 동생이며, 어머니는 김유신의 셋째 누이 김경희이다. 부인은 요석공주이며, 두 딸을 두었는데 첫 딸은 문무왕의 장남인 소명태자의 정혼자였으나 혼인 전에 사망하였고, 둘째 딸은 신목왕후(신문왕의 비)로 683년에 계비로 책봉되었다.



#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www.newyjh.com

###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나답게 살자 (III)'  
- 좋은 습관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XVII -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지난번 칼럼을 통해, 자신의 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주체가 되는 '나답게 사는 일'과 구경꾼이 주체가 되는 '남 다르게 사는 일'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모든 인간의 평생동안 펼쳐지는 생의 스토리는 한 편의 드라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생이라는 드라마 안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구경꾼의 호응에 집착해서 살아 간다면, 어떤 결과와 울까? 그 드라마가 아무리 히트를 친 다 한들, 자신의 인생은 끊임없이 남의 생각에 휘둘리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에게 좋은 무언가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보다 구경꾼이 더 중요한 생은 세상의 잣대에 맞추어 항상 남과 비교하는 삶이 된다. 이 세상에는 정말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나보다 잘하는 남이 더 중요해지면, 결국 자신의 생은 때 순간 희생하며 살아가면서, 타인의 삶을 살아 가려는 것이다. 항상 더 잘난 타인때문에 생의 감사보다는 열등의식의 고통을 담으로 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정말 그렇다. 콩이 팥이 더 좋아보여, 팥이 되려한다면 가량이 찢어지고 만다. 콩이 성형을 하여 팥이 된다하여도, 내면이 변하지 않으니,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다. 중국의 한 남편은 아내의 미모에 반해서 끈질기게 구애 끝에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부부를 전혀 닮지 않은 딸이 태어나면서,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10만 달러로 이혼 성형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사기 결혼이라 이혼을 하면서 고소했고, 승소해서 받은 금액은 12만 달러 나 되었다. 충분한 관계를 통해 서로의 내면을 알아보지 않고, 남 다르게 이쁜 모습에 현혹되어 부부의 인연을 맺더니, 돈 까지 챙기는 이혼을 하면서, 정말 남 다른 막장 드라마를 온 세상에 보여 주었다. 성형으로 콩을 팥으로 변형시킨다고, 콩이 갖고 있는 맛과 팥의 맛이 같을

수는 없다. 콩은 콩답게 살고, 팥은 팥답게 살아야, '나답게 사는 일'이 된다.

대상이론가들 중의 한 명으로, 영국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소아과의사인 도널드 위니콧(Donald W. Winnicott)의 학설을 통해서, 이미 인간은 유아기부터 '나답게 사는 일'보다 '남다르게 사는 일'의 환경에 접하게 된다고 한다. 유아에게 편안함과 위안을 주는 '충분히 좋은 엄마(good enough mother) 엄마는 참자아와 거짓자아를 잘 형성시켜주어 '나답게 사는 일'의 토대를 만들어주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 엄마'의 최선의 노력은 '충분히 좋은 엄마(good enough mother)'의 편안한 보살핌보다 '남다르게 사는 일'에 매진하게 할 수 있다. 완벽한 엄마일수록, 아기가 태어나기 전 부터, 남다르게 완벽한 계획과 함께 완벽한 준비를 한다. 완벽함은 완벽함 틀에 맞추어야 하기에, 준비가 즐거움이 아닌 일(Task)로 변형되기 쉽고, 완벽하게 하려는 일은 불안증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완벽하게 성공하고, 돈 잘벌어오는 완벽한 아버지보다, 충분히 좋은 아버지로 불안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주는 아버지가 아이를 나답게 키울 수 확률이 훨씬 높게 할 수 있다. 조금 좁은 집, 조금 유행에 떨어진 차를 타면 어떠한가? 아이는 최고의 제품의 유아 가구, 최고의 유아 옷, 유아 식, 유모차의 완벽한 준비보다, 부모의 편안함이 우선이다. 많이 안아주고, 스킨쉽을 많이 해주며, 유아와의 관계를 행복해 하는 부모의 마음, 부모가 아이와 관계를 하면서, 아이가 갖고있는 성향을 자신에 맞게 고치기보다, 아이에 성향에 맞추어 보살펴 주는 '충분히 좋은 부모'의 여유의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이 '나답게 사는 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서른 중반에 결혼을 한, 켈리는 세번의 유산

을 겪은 후, 심한 불안증이 오면서 주치의로부터 테라피 요청을 받았다.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그녀는 모든면에서 완벽했다. 완벽하리마치 좋은 딸, 아내, 선생님으로 열심히 살아왔다. 큰 오빠와 남동생의 중간에서 태어난 그녀는 모든것이 일들이었다. 말 잘듣고, 예쁘고, 똑똑하기 까지 한 켈리는 부모의 생의 행복이 자 최고의 자랑거리였다. 완벽하리마치 고분고분하고, 착한 그녀는 어디를 가도 칭찬이 자자했다. 켈리의 부모는 매우 엄격했고, 롤이 선명했다. 켈리는 오빠가 부모의 말을 만들어서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무서웠다고 했다. 그래서, 단 한번도 부모의 롤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켈리의 완벽한 딸이 주는 주위의 찬사와는 다르게, 두 아들은 말쑥의 연속으로 부모의 속을 많이 썩혔다. 그녀의 부모는 너무나 선명하게 두 아들과 그녀를 편애했다. 부모가 집에 없으면, 오빠와 남동생은 그녀의 조금 똥똥한 체형을 놀리며 수치감을 주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 해서 그렇게 좋으나 하면서, 알미로운 X 라고 네임콜링을 하며 죄의식을 주었다.

테라피 중, 그녀답게 한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자신은 항상 부모가 원하는 것답게 살아와서, 그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대학교와 대학원 선정마저 부모님이 정했고, 직업도 부모가 원했던 선생님이 되었다고 했다. 오년전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은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아버지에게 무조건 의존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리고 평생을 자신의 똥똥한 체형이 주는 열등의식으로 폭식증과 (Bulimia)과 거식증 (Anorexia)을 거듭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녀답게 사는 일 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것답게 살아오면서, 켈리는 사실 갑갑한 틀에 갇혀 살아왔다. 자신의 견고한 자존감의 참자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부모 자신이 채우지 못

한 의존 욕구를 그녀의 거짓자아로 채워주면서, 그녀의 거짓 자아를 자신이라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이다. 또한, 수치감을 준 형제에게서 받은 각인 된 상처는 폭식증과 거식증을 발발시켰고, 외모에 집착하는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부분적 성장을 멈추게 하였다. 각인된 상처는 벗어나기가 힘들고,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가 일어난다. 그녀는 더욱 부모가 원하는 것답게 살면서, 형제에게 대항하며 자신을 방어했지만, 형제에 마져 잃은 외로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불안증의 불안정한 심리를 지닌채 상처입은 내면아이를 품은 채 성장해 어른으로 성장한 것이다.

켈리는 임신을 하면서, 내면아이의 상처가 자꾸 건드려지면서 심리적인 불안이 심해졌다. 완벽한 엄마가 되는것에 최선을 다하려 애를 쓰면서 자신의 불안함에 대항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상처많은 내면아이는 형제로 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던 켈리가 부모가 준 상처를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겹겹히 쌓아왔던 억압된 분노를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돌보던 부모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범을 일깨워 가면서,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위해 학교일을 잠시 휴학했다. 그동안, 완벽한 켈리가 아닌, 충분히 좋은 켈리를 보듬으면서 임신에 성공했고, 아들과 딸을 가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파트타임으로 대학 강의를 하면서 완벽보다는 충분히 좋은 켈리로 살아갔다. 두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시작할 무렵, 대학의 부교수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다. '나답게 사는 일'을 알게되면서, 켈리는 자신의 생의 주인이 되었고, 더 주체적인 삶을 갖게 된 것이다.

조 쿠티트(Jo Coudert)의 말로 끝말을 대신한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일생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떠나지 않을 사람은 오직 당신 뿐이다."

어머님&아버님 선물로 안성맞춤

# 효도 라디오

**한국에서 선봉적 인기를 끈 제품**

전원스위치, 볼륨다이얼, 숫자버튼, 비상연락 버튼, 반복듣기, 전국, 미권주파수, 할리우드송, 재생/일시정지, 다음곡, 다음주파수, 할리우드송, 라디오, 음악모드 전환

- 숫자버튼을 이용한 호간편 사용법
- USB메모리, TF카드 (MICRO SD)에 저장된 MP3파일 직접재생
- 고성능 FM라디오
- 스마트폰, 노로복, 넷북, MP3플레이어등의 스피커로 사용가능
- 비상출연전 가능
- 말하식 리모콘을 통한 송신제어
- LED다스플레이 (FM주파수, 음악재생시간, 곡 번호 표시)
- 아이튠즈가 재생 (스트리밍)
- 3W파워스피커 + 3W 하이브리드 루피체음
- 핸드스트랩 기본장착

• 한국 가요  
• 로로복  
• 성경 송방파

**\$69**  
(가요5200곡 또는  
성경4천송가 박집)

**\$79**  
(가요5200곡 +  
성경4천송가)

주문 전화 **보스톤코리아 사업국 617-955-9112**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05)

IRA를 상속할 때 주의할 점

일부 투자자는 변호사를 만나 트러스트 등을 형성하면 모든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트러스트가 왜 필요한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속 받은 자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은퇴자금인 IRA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있을 때까지 유예되는 혜택이 있기에 상속받은 자산이 복리로 증가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인 철수가 50살 때 \$50만 불을 상속받았다고 합시다. \$50만 불이 7%로 40년 동안 세금 없이 투자하면 \$750만 불로 무려 15배로 불어납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받은 IRA (Inherit IRA) 자산을 자치 잘못 운용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한 예로 철수가 \$60만 불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철수 역시 본인 이름으로 투자하고 있는 IRA 계좌가 있습니다. 철수는 IRA는 같은 계좌로 생각하고 상속받은 IRA \$60만 불을 본인의 IRA로 옮겼습니다.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세금이 유예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60만 불에 대한 세금을 그해에 내야 합니다. 세금비율이 40%

라고 하면 \$24만 불을 제외한 \$36만 불만이 남습니다.

상속 IRA가 배우자가 아닌 자식에게 상속할 때는 IRS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IRA 계좌에 상속수혜자(beneficiary)가 정확히 표기되었는지를 확인

처음부터 오랜 기간 상속수혜자 이름이 기록되어있었지만, IRA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합병되거나 혹은 실수로 상속수혜자 이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상속수혜자가 없는 IRA 계좌는 프로베이트(probate) 과정을 통해서 상속됩니다. 이러한 IRA 계좌는 상속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전부 찾아야만 합니다.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해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상속 IRA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custodian)에 연락하여 IRA 계좌를 재설정(retitle)

상속받은 IRA는 이름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한 예로 사망하신 분의 이름이 "김영희"라고 가정하면 - "Young H Kim IRA, deceased FBO Chulsoo Kim, Beneficiary"로 재설정하면 세금유예를 받으며 장기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

상속받은 철수가 실수로 본인 이름으로 간단히 바꾸었다면 IRS에서는 이름을 재설정된 그해에 \$60만 불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상속받은 IRA를 본인의 IRA로 옮길 경우에도 \$6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벌금 6%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IRA 계좌에 새로운 돈을 투자하면 세금유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 상속 IRA 계좌 이름을 변경할 때 재설정해주는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 RMD를 받았는지를 확인

사랑하는 사람이 2015년 추수감사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바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2015년 RMD를 죽기 전까지 찾지 않았습니. 슬픔에 젖은 남은 가족이 2015년 남은 한 달 안에 RMD를 찾지 않으며 50%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2015년 RMD 금액이 \$50,000이라고 가정하면 \$25,000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 상속 IRA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는 trustee-to-trustee transfer 이용

IRA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다른 회사로

옮길 때 수표를 받아 60일 이내에 옮기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며 수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수표를 새로운 금융회사로 보냅니다. 이것은 커다란 실수입니다. 상속 IRA는 수표를 상속수혜자가 받으면 인출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본인의 IRA는 60일 이내에 다른 회사로 옮기면 되지만 상속 IRA는 trustee-to-trustee transfer로 옮겨야 합니다.

\* 상속받은 IRA의 RMD

IRA를 상속받은 사람은 본인이 70살 반이 될 때까지 RMD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속 IRA는 사망한 후 그다음 해부터 RMD를 받아야 합니다. RMD의 금액은 상속받은 사람의 평균 수명에 따른 계산으로 받게 됩니다.

상속계획은 문서로 무엇인가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속받은 자산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운용하는 가입니다.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상속 IRA를 제대로 운용하면 커다란 자산으로 불어납니다. 남은 자식들은 물론 손자 손녀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소식 (2015년 10월 28일)

1. I-824

최근 이민국은 Form I-824가 언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Form I-824는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의 승인과 모든 관련서류를 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transfer 하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Form I-130 또는 Form I-140에 이들 신청서가 승인되면 차후 작업을 외국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I-485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할 것인지에 대해 기입해야 합니다. 만약 차후 작업을 해외에서 하겠다고 기입하면 I-130 또는 I-140이 승인된 후 이민국은 자동으로 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국무부의 National Visa Center로 이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I-824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I-130 또는 I-140에 미국에서 I-485를 통해 차후 작업을 하겠다고 기입한 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외국에서 차후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엔 반드시 I-824를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을 I-130 또는 I-140 승인 후 I-485를 대비해서 모든 관련서류를 미국내에 위치한 National Records Center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824를 통해 이 서류들을 NRC에서 국무부로 다시 이관하여야 합니다.

2. E-2 신청

최근 이민국은 E-2 신청서 심사에서 source

of fund와 valuation of invested entity에 중전보대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2 신청에서 source of fund의 기준이 투자비자에서의 source of fund 보다는 상당히 낮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기준이 투자비자 만큼 높은 것은 아니지만 투자금의 출처가 적어도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심사는 상당히 강해진 느낌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의 출처를 밝힐때 정당한 세금을 낸 증거, 합법적인 경로 또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투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증거, 그리고 미국에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는 증거 등을 포함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투자한 비즈니스에 대한 진정성도 최근 상당히 세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가 현재 또는 앞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자세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리스계약서, 광고, 세금보고서 등이 좋은 자료들입니다.

3. 연장된 몇가지 이민 카테고리

지난 9월 23일 칼럼에서 EB-5로 불리는 투자이민과 비성직자에 대한 종교비자(R-1) 등이 9월 30일로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오는 12월11일까지 법적 효력을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이민과 종교비자 등을 적어

도 12월11일까지는 계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에서는 최저투자금에 대한 상향조정과 투자자에 대한 자격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4. 추첨영주권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10월1일부터 2017년 회계년도 추첨영주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추첨영주권은 이민자들의 다변화를 위해 영주권 신청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일정기간의 신청기간동안 (올해는 10월 1일부터 11월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접수된 신청서들 중 추첨을 통해 매년 오만개를 선정합니다. 여기에 선정된 분 들은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 지정 기준은 지난 5년간 50,000명 이상의 영주권자를 배출한 나라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지난 5년간 오만명 이상 영주권자들을 배출한 국가들은 추첨영주권 자격 조건에서 제외 됩니다.

위와 같이 중국은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홍콩과 대만 출생자들은 추첨영주권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첨영주권의 자격조건은 국적이 아니라 출생국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홍콩, 북한 등에서 출생하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 한국입양아

앞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미국인이 한국 고아를 입양하고 이 입양아를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이민 작업은 반드시 한국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외국의 입양아에게 미국시민의 자녀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신분을 주는 I-601에 대해 입양되는 아이가 한국국적인 경우 I-601에 대한 심사는 반드시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만 하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한국이 재정한 특별 입양법을 미국정부가 인정하고 이를 따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의 특별 입양법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 출생 아이들을 입양을 원하면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 기관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양부모들의 자격조건을 철저히 검사하겠다는 취지라 생각합니다. 이민국의 이번 특별조치를 보면 아직도 한국의 많은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한국이 이들 입양아들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미국정부에서도 지켜준다는 것에 위안을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에게 문의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강력 추천품!**

**강원도 우수 농수산물전**

천연인슐린 성분 함유 "여주"로 부작용 없이 당뇨 관리하세요.  
 당뇨 및 혈관질환에 특효한 "여주"  
 저온숙성 기술로 만들어서 몸에 좋은 "여주"를 쓰맛없이 즐기세요  
**교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시골장터

**장소 : 뉴릴라이어블 마켓**  
 45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TEL. 617-623-9620

**행사기간 : 10월30일(금) ~ 11월1일(일) 3일장**  
**앵콜! 강원도 농수산물 전시 판매**

★ 행사문의: 732-513-4369 ★

<p><b>갯갈류</b></p> <p>명란젓, 창란젓, 조개젓, 어리굴젓, 가지미 식혜, 낙지젓, 갈치숙젓, 새우젓, 명게젓, 오징어젓, 황태회무침</p> 	<p><b>반찬류</b></p> <p>무말랭이, 고들빼기, 도라지 무침, 더덕무침, 매실장아치, 양념깻잎, 양념고추, 된장깻잎, 된장고추, 마늘쫑, 방계무침등</p> 	<p><b>나물류</b></p> <p>취나물, 곤드레, 부자쟁이, 건도라지, 토란대, 표고버섯, 무청시래기, 무말랭이 등</p> 	<p><b>멸치류</b></p> <p>다시멸치, 볶음멸치, 지리멸치, 멸치국물용 가루</p>	<p><b>떡종류</b></p> <p>강원도 오색감자떡, 횡성 명물 안흥 찜빵</p>
<p><b>건어물</b></p> <p>황태포, 황태채, 북어채, 황태머리, 흥진미채, 마른오징어, 전새우, 노가리등, 가문어, 디포리, 변건조오징어</p> 	<p><b>해초류</b></p> <p>참미역, 다시마, 미역귀, 들자반 김, 김밥용 김, 즉석구이 등, 말린 톳</p> 	<p><b>생선류</b></p> <p>참굴비, 손질한 가지미</p> 	<p><b>기타</b></p> <p>잡쌀떡과, 100% 표고버섯가루, 100% 다시마가루, 100% 도라지가루, 당뇨에 아주 좋은 말린여주차, 도라지즙, 산수유즙, 옥마늘즙, 배즙, 취즙, 양파즙</p> 	
<p><b>건강식품</b></p> <p>도라지 100% 진액, 겨우살이, 삼계탕용 재료, 황기, 당귀, 산수유, 오미자, 매실원액, 100% 산약마가루, 당뇨에 좋은 개동숙</p> 	<p><b>장류</b></p> <p>고로쇠 국간장, 청국장, 다시마 국간장, 참기름, 들기름</p> 	<p><b>잡곡</b></p> <p>메밀묵가루, 메밀부침가루, 메밀국수, 은행마죽, 벚꽃떡마죽, 들깨가루, 엿기름, 엿</p> 		

# NFL에서 무패를 기록 중인 5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5년도 NFL 정규시즌이 7주차를 지나 시즌 중반으로 치닫고 있다. 각 팀마다 6-7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아직까지 5팀이 무패를 기록 중이다.

1990년 이후로 시즌을 6승 0패로 시작한 팀 중에서 94%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현재 6승 0패를 기록 중인 5개 팀은 플레이오프에 진출이 거의 보장되어 있는 셈이다.

5개 팀 모두 앞으로 남은 후반기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적수가 없는 강팀들이다. 어떤 팀들이 무패가도를 달리고 있는지 살펴보자.

## Denver Broncos (6-0)

브롱코스는 7주차에 경기가 없이 휴식 시간을 가졌다. 어느 팀이나 시즌 중에 휴식과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특히 브롱코스는 페이튼 매닝이 쉼 시간이 필요했다.

올해 39세인 매닝은 이미 전성기를 지나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다. 데뷔 이후 17년 동안 NFL에서 최고의 쿼터백으로 활약한 매닝이지만 올해 들어 팔의 힘이 떨어진 게 눈에 보일 정도다. 작년의 매닝과 올해의 매닝은 확실히 다르고, 브롱코스의 공격력 역시 작년 보다 많이 약해졌다.

매닝은 첫 6번의 경기에서 10개의 인

터셉션을 기록해 선발 출전 쿼터백 중에서 가장 많은 인터셉션을 기록했다. 패스 시도당 6.4야드도 매닝의 프로 경력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 Carolina Panthers (6-0)

팬서스가 시즌 초반 6연승을 기록한 것은 팀 창단 이후 처음이다. 특히 가장 마지막에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는 쿼터백 캠 뉴튼이 기대 이하의 경기를 했음에도 팬서스가 승리를 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팬서스는 NFL에서 가장 신체 조건이 좋은 쿼터백으로 꼽히는 뉴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글스와 경기에서는 뉴튼이 인터셉션을 3개나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머지 팀원들의 활약으로 경기를 승리했다. 팬서스가 더 이상 뉴튼 혼자만의 팀이 아니며, 그만큼 더 강력해졌다는 의미다.

## Green Bay Packers (6-0)

7주차에 휴식을 취한 패커스는 다음 경기에서 후반기 성적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무패를 기록 중인 브롱코스와의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패커스에는 리그 최고의 쿼터백 아론 로저스가 버티고 있지만, 로저스는 이번 시즌에 아직까지 강력한 수비를 상대해보지 못했다. 로저스는 경기당



올해 들어 브롱코스의 쿼터백 페이튼 매닝의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281.3야드만을 허용하고 NFL에서 가장 많은 턴오버를 기록 중인 브롱코스 수비를 상대해야 한다.

## Cincinnati Bengals (6-0)

벵갈스 역시 7주차에 휴식 시간을 가졌다. 벵갈스는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쿼터백 앤디 달튼이 팀의 공격을 이끌면서 리그에서 손꼽히는 공격팀으로 변모했다.

달튼은 6번의 경기에서 1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반면 인터셉션은 2개만을 기록했다. 벵갈스는 경기당 410.3야드를 전진하며 팀 종합 공격 순위에서 3위에 올라 있다.

## New England Patriots (6-0)

오프시즌 동안 디플릿게이트로 언론의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패트리어츠는, 시즌이 시작하자 실력으로 모

든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38세의 나이에도 절정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쿼터백 탐 브래디의 영향이 크다.

패트리어츠는 수퍼볼 우승 이후 핵심적인 선수들이 대거 자유 계약 선수로 팀을 떠나며 전력 하락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10년 이상 변함 없이 팀을 이끌고 있는 빌 벨리치 감독은 결국 해법을 찾고 경기에서 승리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 [PGA] 케빈 나, CIMB 클래식 1라운드 5언더파 공동 8위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재미교포 케빈 나(32·한국명 나상욱·타이틀리스트)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CIMB 클래식(총상금 700만달러) 1라운드에서 공동 8위에 올랐다.

케빈 나 29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골프장(파 72·6951야드)에서 벌어진 대회 첫날 보기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 5언더파 6타를 적어냈다.

스펜서 레빈, 모건 호프만(이상 미국), 맷 존스(호주) 등과 동타를 이룬 케빈 나 8위로 대회를 시작했다. 첫 날 10언더파를 몰아쳐 단독선두에 오른 스캇 피어시(미국)와는 5타차.

프라이스닷컴 오픈과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 등 최근 2주 연속 준우승을 차지하며 좋은 감을 보였던 케빈 나 3번 세 번째 대회에서도 첫날 상위권에 오르며 시즌 첫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케빈 나 3

지난해에도 이 대회에서 라이언 무어(미국)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한 경험에 있다.

1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케빈 나 2번홀(파4)과 3번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면서 기세를 올렸다. 이어 4연속 파세이브 이후에는 8번홀(파3)에서 버디를 뉘으면서 전반을 3언더파로 마쳤다.

후반들어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하던 케빈 나 16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순위를 끌어올렸고, 마지막 18번홀(파5)을 버디로 마무리하면서 10위권에 들어섰다.

선두 피어시는 1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만 10개만 잡는 맹타를 휘두르며 선두로 나섰다. 지난 7월 바사출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던 피어시는 3개월만에 개인통산 4승에 도전한다.

프레지던트스텝에서 인터내셔널팀 소속으로 출전했던 마쓰야마 히데키



재미교포 케빈 나(32·한국명 나상욱·타이틀리스트)

(일본)는 1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한 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를 기록, 피어시에 세 타 뒤진 단독 2위에 올

랐다. 아담 스콧(호주)은 4언더파 68타로 공동 16위를 마크했고,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5·한국명 이진명)는 1오버파 73타로 공동 68위에 머물렀다. starburyny@news1.kr

#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손: Al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 본손: 20% 절약
- 돼지곰: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http://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5%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틀, 런드로맷(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킹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톤 북쪽 식당, 아침/점심 연매상 \$290,000+ 1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 동양식당 연매상 \$330,000 브라운대학 근처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드롭 보스톤서쪽(RT.2) 연매상 \$70,000 매매가격 \$29,000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교육원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I(old,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 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전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 2015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 기간: 11.21(토)~20(일)  
1. SAT I Class  
12월, 1월 시험대비 집중 프로그램  
-실전문제들이 중심의 수업  
-수업과 문제풀이의 총일 프로그램  
9:00-5:00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배분  
2. SAT II subject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3. AP 및 경시대회 준비 개인수업

### 학기중 주말 프로그램

• SAT I Class:  
1.기간: 9.05~1.16(2016)  
-4주 단위 등록  
-상시 등록가능  
-기술문제 풀이 중심의 집중코스  
2. 시간표  
9:00~12:00 실전문제풀이  
12:00~1:00 점심식사  
1:00~4:00 수업  
• SAT II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